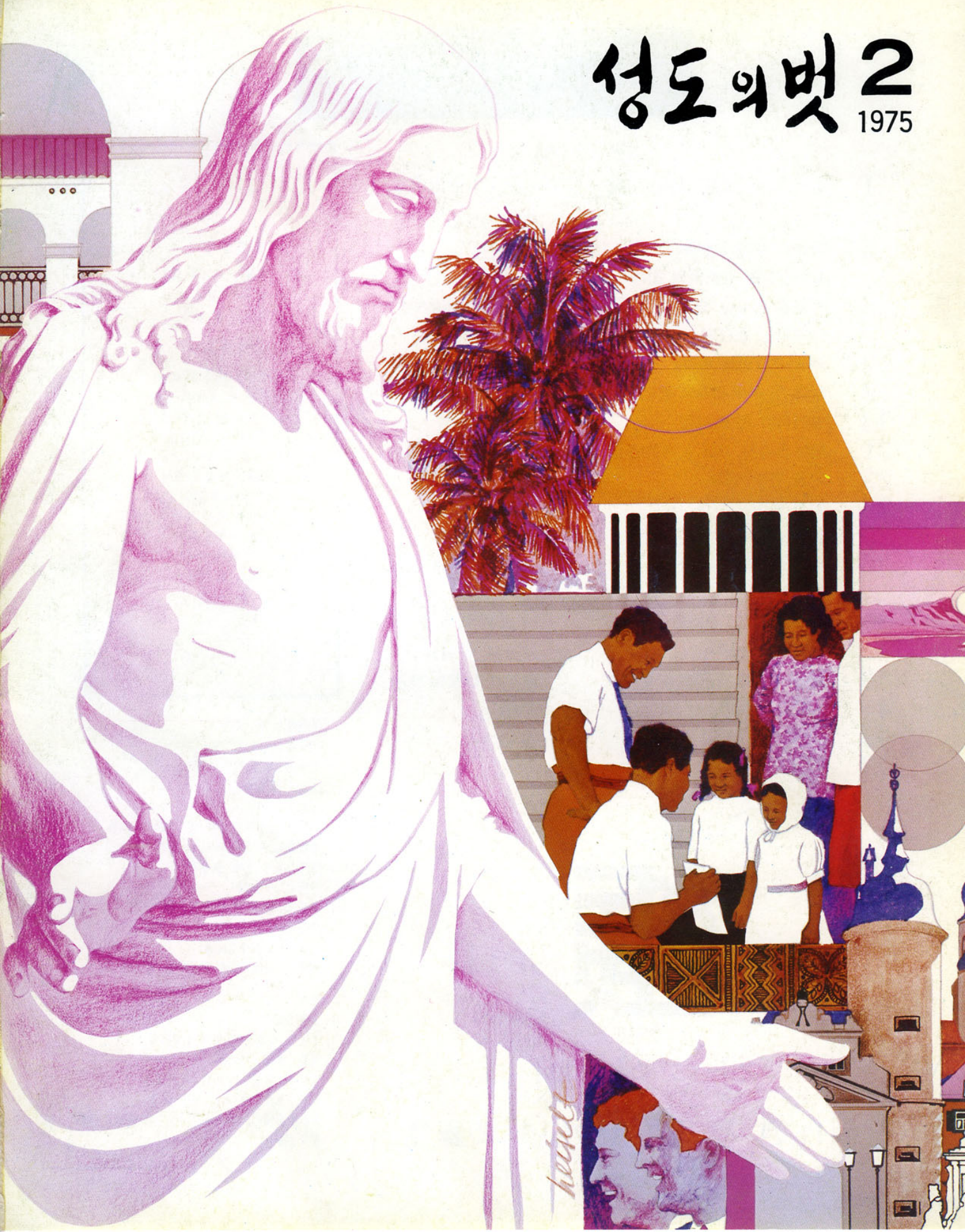


성도의 빛 2

1975



『당신은 75년 한국 대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서

- | | | |
|----|--------------------------|---------------------|
| 1 | 공의롭고 합당한 시온의 대업 | 스펜서 더블류 김볼 |
| 4 | 손 | 루드안 보이어 랜달 |
| 5 | 칠십인 제일 정원회 | |
| | 로렌 시 던 장로와의 접견 | |
| 8 | 복음을 전하는 방법 : | 어네스트 에버하드 |
| | 단계적인 접근법 | |
| 12 | 왜 선교사업을 하나? | 고든 알 부캐넌 |
| 13 | 십대 소년 목격자의 증언 | |
| 14 | 예언자와 선교 사업 | 도일 엘 그린 |
| 21 | 테마라마가 가장 행복했던 날 | 돈 아세이 |
| 23 | 저음 가수 부머 | |
| 28 | 심심 풀이 | |
| 29 | 질의 응답 | |
| 30 | 주는 우롱당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스펜서 더블류 김볼 |
| 35 | 왜 내 아들이 오늘밤
방황하고 있을까? |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 39 |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 에즈라 태프트 벤슨 |
| 42 | 절망하지 말라 | |
| 46 | 스테이크 부장단 메시지 | 이 호남 |
| 47 | 내외 소식 |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벚

월간

성도의 벚

제11권 제2호 1975년 2월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5년 2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15호

발행인점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4-6832

발행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 수

정가

1권 15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불

필리핀, 월남, 라오스, 태국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 아시아 18불

선박 3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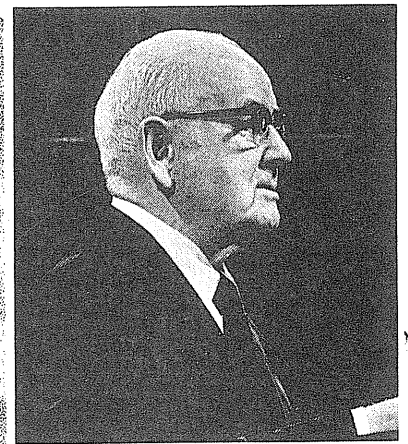
공의롭고 합당한 시온의 대업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행

무슨 일을 하든 그 방
법이 참으로 중요하나 그
일을 하는 목적은 그보
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업이
공의롭고 가치있는 일임을 확신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 우리와 사랑하는



1974년 4월 7일 일요일
오후 모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과 발전과 성취감이 가득찬 바쁘고도 목적있는 인생을 살아 갑니다.

여러분이 이 생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모든 바람직한 일들로 가득찬 다음 세상을 이 세상의 연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발전과 기쁨과 성장과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면 이 생과 비슷하나 제약이 적고 보다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찬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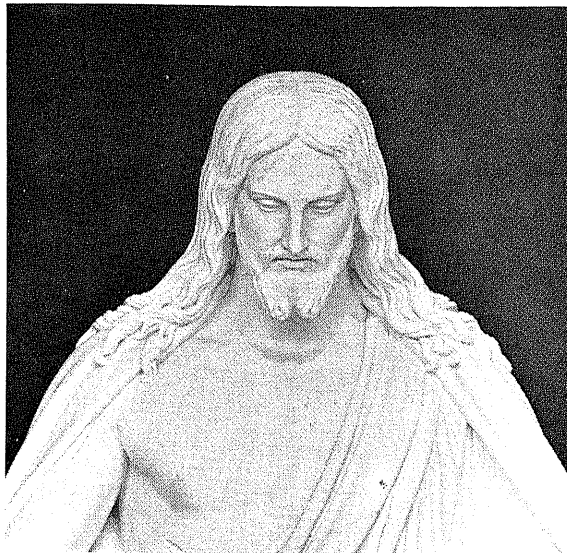
존 헨리 조젯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제단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불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과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존 헨리 조젯트, 영감의 보고 중 “가정을 이루어 주는 하나님”, 랄프 엘 우즈 지음, 뉴욕: 토마스 와이 크로웰 출판사, 1951년, 260 페이지)

여러분께서는 가정이 제 기능을

다하고 가족에게 영감과 계시를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주는 교회의 기본 프로그램에 관해 수차 들어 오셨습니다. 자신의 두뇌만을 의지하여 결정을 내린 사람들 중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학이나 공학, 심리학, 수학, 사회학, 생물학 등을 공부하여 학사 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16년에서 20년간을 기꺼이 연구하며 강의 듣고 교수들의 도움을 받는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데 이따금 기도를 드리거나 약간의 시간을 들이고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어느 분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경전 공부와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로다”(요 5:39)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 24:25-26)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6, 11)

그는 이렇게 계속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2-14)

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천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욥 32 : 8)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마태복음 27-54)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에 관해 두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멋진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소.”

이 말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의 생애와 성품에 관한 옳은 면을 글로 써 보십시오. 그가 신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인간다운 사람으로 묘사해 보십시오.”

이러한 제언이 실천에 옮겨졌고 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글을 쓰도록 제의한 사람은 인거술 대령이었고, 이 글을 쓴 사람은 루 윌리스 장군이었으며, 그 책의 제목은 “벤허”였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작가는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그의 생애와 성품에 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그가 인간들 중에 있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는 십자가 밑에서 그를 지키던 백부장이 한 것처럼 그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전에 이해하거나 느껴보지 못한 일들을 꿈을 통해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조지 에프 리차즈 형제가 회장으로 재임했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 모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는

리그랜드 리차즈 형제님의 부친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꿈을 믿읍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여러 차례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들은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애굽왕 바로가 받은 것이나, 자기 일행을 이끌고 깊은 대양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한 리하이의 꿈이나 그의 우리가 경전에서 읽을 수 있는 다른 꿈과 같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절실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일을 암시해주는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40여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는 꿈을 꾸준히 있습니다. 이 꿈에서 나는 공중에서 제신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해 내가 갖는 사랑은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구세주에 대해 지닌 것과 같은 큰 사랑을 지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곁에 오래 있고 싶었지만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 꿈을 꾸 이후 나는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비록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 : 2-3)고 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구세주와 함께 할 수만 있

고, 그 꿈에서 지닌 것과 같은 사랑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내 인생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 대관장단에 재임한 바 있는 조지 큐 캐논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예수가 살아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그가 현재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 계시며,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려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합니다.”(1896년 일반 총회에서 행한 말씀, 데저렛 위클리 에 게재됨, 1896년 10월 31일, 53권, 610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형제들이 이와 똑같은 간증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참된 중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훌륭한 분들의 간증 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나의 간증을 더하여 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바를 이행하면 그분을 볼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으며, 그의 면전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이러한 간증을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손

루드안 보이어 랜달

손

나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보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힘이 있고 따뜻한 큰 손이 나의 작은 손을 완전히 감싸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었는데, 나는 아버지의 손을 보며 왜 아버지는 자주 상처를 입으시며 손톱에 피가 맺히는 일이 잦으실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점차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잡고 아버지가 가시는 대로 따라 다녔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십대의 소녀로 성장하였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와 함께 있다가 우연히 할머니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혈관이 살갗 위로 드러난 무디고 주름잡힌 손이었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피부가 닳았으며, 오른손의 뼈마디는 왼손 마디보다 굵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손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부지런히 다른 일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은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남편의 손을 꼭 잡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이해심에 찬 마음을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따사로운 손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손도 세월을 말해 주는 주름으로 차 있습니다. 귀여운 손을 가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내 손에 주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훌륭히 성장하도록 돌보며 도와 주느라고 손에 주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윤기있고, 깨끗하며,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바빠 움직이며 도움을 주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혈관이 드러나 보이며 굵은 뼈마디와 주름이 생긴 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의 뼈마디는 왼손의 뼈마디보다 굵으며 피부는 일을 많이 해서 꺼칠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손을 할머니나 어머니 손 옆에 갖다 대어 본다면 아무런 차이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손에 그와 같은 주름이 생겼는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고 서로 미소만을 지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가 지고의 사랑과 희생으로 주름이 생긴 우리 구세주의 손을 보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못자국이 난 그의 성스러운 손길이 우리가 그와 같이 값진 손을 만질 수 있을 만큼 합당할 때 부드럽게 우리의 손을 감싸 줄 것입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로렌 시던 장로와의 접견



성도의 벗

성도의 벗; 김볼 대관장님께서서는 최근에 십이사도 지역 대표에게 행한 말씀(성도의 벗, 1974년 11월, 2페이지)에서 선교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선교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던 장로: 우리는 111개 선교부에 18,000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선교사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침을 주셨는데, 이것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사람의 수를 계속 늘리는 일입니다. 김볼 대관장님이 더 많은 선교사를 내어 보내라고 하신 말씀은 55,000명의 선교사를 뜻하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젊은이가 각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벗: 이 말씀은 각 선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던 장로: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모든 백성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각국에서 그 백성 중에서 선교사를 배출하는 일입니다. 사모아인이 사모아인에게, 멕시코 사람이 멕시코 사람에게, 일본인이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기 나라 선교사가 잘 훈련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바는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의 수를 늘리자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벗: 전세계에 있는 보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 사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던 장로: 우리는 멕시코에서 일 년에 네 차례 그곳 성도들 가운데서 선교사를 부르는 시범 계획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이 날짜가 언제인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은 선교사는 멕시코에서 봉사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



접견

는 일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부르는 대신 일 년에 네 차례 부르게 되므로 선교부장은 솔트레이크시티의 본부에서 선교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정규 지도 모임을 개최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이점은 일 년에 네다섯 차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기회가 있게 되므로 지역 신권 지도자는 예비 선교사가 준비를 갖추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과를 보아 다른 나라에서도 실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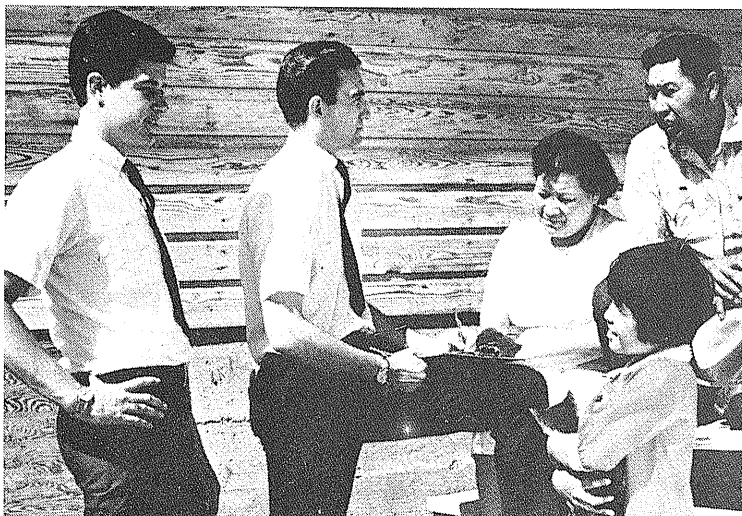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지역 복음 선교사를 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교사의 수가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로 과거 일부 지역에서 지역 청년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권장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고쳐지고 있습니다. 교회 본부와 가까이 있는 곳의 스테이크에서는 신권 지도자나 가족이 유능하고 합당한 젊은이에게 어려서부터 선교 사업에 임할 기금을 모으고 준비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제는 교회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빛 : 재정적으로 완전히 뒷받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던 장로 : 주의깊게 계획을 수립하여 선교 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전액이나 일부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가족이나 지역 신권 지도자가 최선을 다했으나 모자랄 경우에는 교회의 선교사 기금으로 나머지 부족금을 보충하게 됩니다. 이 기금으로 선교사 기금의 전액을 지불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선교 기금을 충당한 후 이 기금은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제 상태로서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크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30내지 40시간을 선교 사업에 바치는 스테이크나 지방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크게 공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하게도 됩니다.

성도의 빛 : 지역 와드나 지부에서 선교 기금을 모으고 선교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을까요?



던 장로 : 나는 지역 단위에서 그러한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의 권고가 알려지면 그들이 젊은이에게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도록 전보다도 더 열심히 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 미국 서부 지역에서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 젊은이들은 봉사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였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파견 지역의 언어로 말할 줄 모르거나 그 국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교사보다 그 지역 출신의 선교사가 훨씬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지역 출신의 젊은이는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점을 가진 예비 선교사라는 점을 알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벗 : 우리는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해 몇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던 장로 : 나는 킴볼 대관장님께서 그 뜻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젊은이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물론입니다”라고 단호히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칩레를 받은 젊은이나 모든 신권 소유자는 킴볼 대관장이 우리의 예언자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전이나 교회의 역대 대관장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하신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에게 권고를 주시고 강조하신 분은 살아 계신 우리의 대관장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합당하고 유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교 사업에 임하는 사람의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일을 맡아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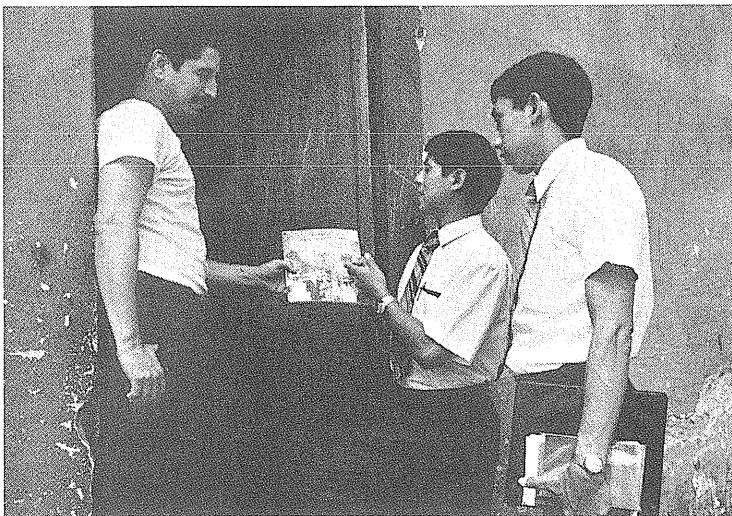
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 오래 전부터 열 두 살이 되는 청소년과 그보다 더 어린 소년들까지도 장차 선교사로 봉사할 소망을 품거나 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저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청소년이 훌륭히 교육을 받고 정규적으로 접견을 받는다면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을 때 합당하게 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칩레 성약을 통해 주님과 교회에 맺은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권에 따른 책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 힘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큰 소망을 지닌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이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조직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자신이 구원을 가르칠 수 있고 암흑 속에 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는 지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는 그러한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봉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가 어떤 사람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할 때 거둘 수 있는 공헌이란 일반적으로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의 프로그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개종시켰을 때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승영의 소망을 안겨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종교를 생활에만 실천한다면, 그를 보다 훌륭한 시민이 되게 하며, 모든 면에서 그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벗 : 자매 선교사의 배출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까?

던 장로 : 자격을 갖춘 자매 선교사의 배출을 계속 권장하고 있으나 그 요구가 형제 복음 선교사에 비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젊은 여성은 그 길을 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이 젊은 남자가 지닌 선교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의 책임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권 소유자가 이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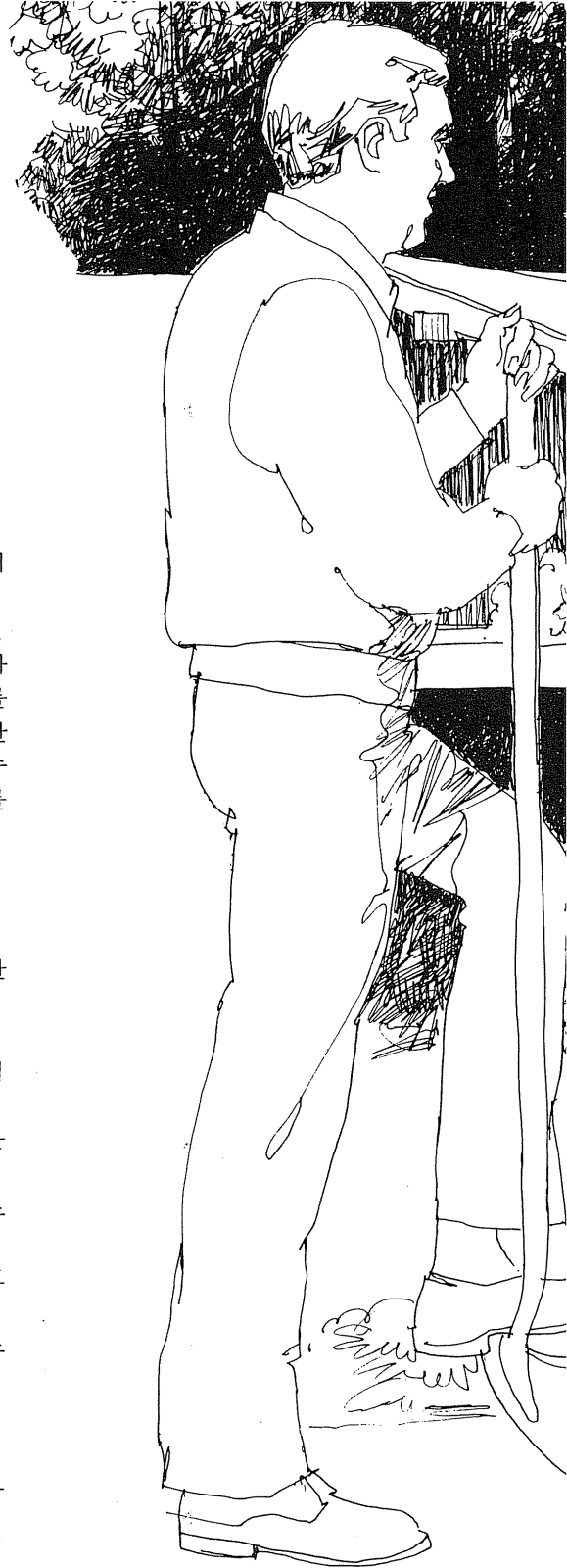
청소년이 십대에 이르면 복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을 만큼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합당하다면 마땅히 이에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모든 유능하고 합당한 젊은이는 지역 신권 지도자가 추천하고, 주님께서 교회 대관장을 통하여 부름을 줄 때 기꺼이 복음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

단계적인 접근법

어네스트 에버하드 오레곤 선교부장



이웃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
우리는 이말을 얼마나 자주 들어 왔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모든 회원이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나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해 이는 실행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데는 어려운 방법이 필요없다. 여러분은 실천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라는 주님의 명을 따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절차를 따르면 친구나 이웃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게 된다. 가족이 있는 가정은 선교 사업을 가정의 일로 생각하여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제언

가. 단계를 계획한다.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회는 찾아 오나 여러분은 각 단계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계획하여 실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의 요구 및 사정에 맞추어 단계를 변경하거나 첨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나. 한 가족 이상과 접촉을 갖는다. 복음을 받아들이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가족이나 한 사람이 상과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다. 시간 목표를 설정한다. 매주 적어도 한 번씩 그 가정이나 개인과 접촉한다. 각 단계를 이룰 수 있는 구

체적인 시간 목표를 정한다. 여러분 스스로도 목표를 정한다.
라. 구도자를 선교사에게 소개한다.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찾게 되면 가정 복음 교사를 통해 선교사와 만날 수 있게 추천한다. 실제로는 몇 단계가 생략될 수도 있으나 다음에 열거하는 단계를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된다.

개요 :

1. 가정을 선정한다.
2. 사귄다.
3. 그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한다.
4. 함께 외출한다.
5. 그들에게 여러분이 말일성도임을 알린다.
6. 그들에게 교회에 관한 소책자를 준다.
7. 그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밤에 초대한다.
8. 그들을 초등학교, 상이회, 상호부조회에 초대한다.
9. 그들을 교회의 사교 모임에 초대한다.
10. 그들을 교회 집회에 초청한다.
11. 간증을 드린다.
12. 그들에게 “가장 귀한 질문”을 던진다.
13. 선교사에게 부탁하여 그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르치게 한다.

제1단계 :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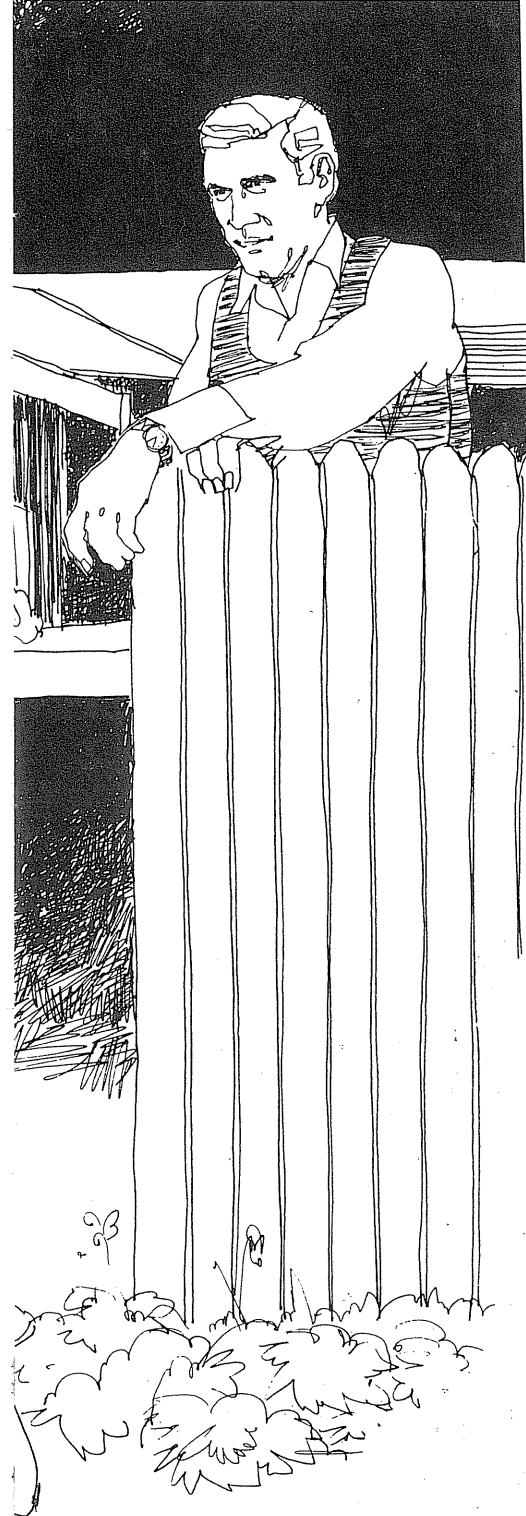
가. 먼저 비회원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당되는 잘 아는 사람이 없나를 자문해 본다.
교회에 관하여 질문한 사람은 누구

인가?

교회나 교회 회원에 대해 존경심을 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대의 종교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아 가



사킨다

는 자기 가족에게 남달리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교회의 표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친절히 대하는 사람은 누

구인가?

계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최근에 가족을 잃은 사람으로 우리 교회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최근에 결혼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족의 유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식구가 늘어 가정 생활에 지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를 들어 본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매사에 친절하면서 진지한가?

최근에 이사를 와서 이웃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없나?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한 사람은 없나?

세계 박람회의 물몬관을 방문한 사람은 없나?

나. 비회원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배타적인 태도는 금물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다. 진정으로 친구가 되기를 원해야 한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친구나 개인의 우정을 원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의 일로만 보지 말고 진정한 우정이 싹트게 되도록 주님께 간구한다.

라. 기도한다. 특정한 가족과 개인을 위해 주님의 도움과 지도를 간구한다.

제2단계 : 사킨다.

가. 각자의 이름을 외운다. 각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 외운다. 이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나. 항상 명랑하라. 미소를 짓는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웃이 알고 싶어 하는 가정이 되게 한다.

다. 훌륭한 경청자가 되라. 이웃의 마음속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관심사보다는 이웃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라. 개인의 관심사를 함께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각자의 사업이나 직업, 가정 활동, 자녀의 관심사,

휴가, 개인 소유물(자동차, 취미, 정원, 애완 동물 등)에 관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어머니나 주부들은 자녀, 장식, 요리, 바느질, 독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마. 각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 그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그를 도울 일은 없을까? 그가 정원을 손질하고 있지는 않나? 연장을 들고 도우라. 그의 옆에서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젊은 부부에게 아기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도와 주라. 그들을 본 지가 오래되었나? 그렇다면 혹시 몸이 불편한지 혹은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 보라. 휴가 중 집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지도 알아 보라.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돌보라. 그들의 자녀를 소풍에 데려 갈 수는 없는지? 혹은 다른 놀이는 어떤가?

바. 기도하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들을 알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도로 간구한다.

제3단계 : 그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한다.

가. 초청 이유를 설명한다. 그 가정을 초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뜻을 알려야 한다. 평범한 관계에서 우의가 깃든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하며 어떤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찍은 사진이 오늘 나왔습니다. 맥의 사진도 가지고 오셔서 나누어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 보시지 않겠어요?”

“아내가 오늘 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인과 함께 초대하고 싶은데요.”

“우린 거실을 새로 꾸몄어요. 와서 좀 봐주시지 않겠어요?”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이웃 사람들과 파티를 가질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 와 주시지 않겠어요?”

나. 책자나 잡지를 이용한다. 성도의

벗이나 기타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담은 교회 책자가 흥미를 끌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받기 전에는 그것에 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

다. 기도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초대하는 가족이 기쁘게 여러분의 초대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기도로 간구한다.

제4단계 : 함께 의출한다.

가. 그들의 관심사에 마음을 쏟는다. 그들이 원하는 바나 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일이나 그들이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 활동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분의 우의를 깊고 넓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족하다.

나. 그들이 제안하게 한다. 그들이 여러분을 초대하거나 어느 곳에 같이 가자고 제의를 하면 기쁘게 받아들인다. 만일 그 장소나 일이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그 시간에는 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다른 때와 장소를 말해 본다. 이러한 제안은 그들의 생각이므로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이런 데서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다. 기도한다. 어느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할 것인가를 주님께 간구한다.

제5단계 : 그들에게 여러분이 물몬임을 알린다.

가. 물몬 행사를 활용한다. 여러분의 이웃이 무슨 행사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한다. 대화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예의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오늘밤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가야 합니다.”

“제 딸애의 과학 선생님과 제 남편은 같은 정원회에 속해 있답니다.”

“나는 오늘 부산에 있는 조카로부터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는 지금 그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지요.”

“이 그림은 제 딸이 초등학교에서 그린 거예요.”

“오늘 교회의 특별 모임이 방송으로 중계되었어요.”

이상과 같은 대화는 여러분이 말일성도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이 단계의 목적이다.

나. 흥미있는 이야기를 말해 준다. 만일 여러분의 선조 중에서 여러분을 개종시킨 흥미로운 경험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 준다.

다. 심오한 교리를 말하지 않는다. 영광의 세 등급이나 시현과 관련된 심오하며 개인의 영적인 경험이 갖는 이야기는 이 단계에서도 아직 이르다. 복음은 간결한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방법을 택해 접근한다.

다. 기도한다. 어떻게 어디서 언제 이 단계를 택해야 하는지 주님께 도움을 간구한다.

제6단계 : 그들에게 교회에 관한 소책자를 준다.

가. 교회 소책자를 주어도 괜찮겠는지 생각해 본다. 그들이 교회에 관심을 표명하면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나 “어느 교회가 옳은가?”나 “정다운 토론”이나 “물몬이란?”이라는 소책자를 전달해도 좋다.

나.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에 관한 소책자를 전한다. 만일 여러분의 친구가 금주나 금연에 관심이 있거나 여러분이 지키는 표준에 호기심을 보이면 “지혜의 말씀”과 같은 소책자를 주어도 좋다.

다. 분별력을 활용한다. 여러분이 읽은 책이나 소책자 중에서 그 가정에 특별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책만을 택해서 전달한다. 소개 책자로는 사진이 많이 실린 것이 좋다.

라. 기도한다. 그 가정에 무슨 책을 주며 여러분이 전한 책이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읽힐 수 있을까를 간구한다.

제7단계 : 그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밤에 초대한다.

가. 그들에게 강한 가족의 유대를 보인다.

모든 가정이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간증 이외에 강한 가족의 유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교회의 절차를 시범으로 보인다. 예로서 가정이 어떻게 가정을 관리하며, 각 가족은 얼마나 중요하며, 가정의 단합은 어떻게 가정에 사랑과 이해심을 가져다 주는지를 나타내 보인다.

나. 잘 계획된 가정의 밤을 준비한다. 월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가정의 밤을 계획해서 가정을 초대한다. 월요일은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의 밤을 갖는 날이다.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계획하고, 초대 손님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참여시킨다.

다. 신중한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적절히 시간을 조정한다.

라. 그들이 자기의 가족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게 한다. 여기에는 그들의 계획, 활동, 업적 등이 포함된다.

마. 교회에 관한 질문을 피한다. 비활동 초청자에게 이 단계에서 교회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그 대신 가족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관한 전전하고 기본적인 원리를 공과나 토론을 통해 시범으로 보인다.

바. 기억의 책을 보인다. 여러분 자녀의 기억의 책을 보이고 토론한다. 대개의 경우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을 여러분의 관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사. 기도한다. 그들을 어떻게 가정의 밤에 초대하며, 가정의 밤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님께 영감을 간구한다.

제8단계 : 그들을 초등학교, 상이회, 신학연구원, 상호부조회 등에 초대한다.

가. 교회의 제반 프로그램을 생각한다. 교회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비회원 가족과 활용한다.

상호부조회는 여성을 위한 모임으로 문화의 정수, 가사, 사회 관계 등을 다룬다. 토론될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인 생활반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모든

자매는 가능한 자주 친구를 상호부조회에 데리고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론 신권회나 멜기세덱 신권 상이회는 12세 이상의 독신 남녀를 위한 모임이다. 여기에는 남녀 회원들을 위한 소년단, 무용, 연극, 웅변, 봉사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친구를 데리고 나오게 한다.

고등학교와 대학 연령 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원 중등부와 대학부는 복음을 가르치는 훌륭한 기관이다. 자녀들에게 비회원 친구들을 신학원 특별 프로그램이나 주례 신학원연구원 중등부 가정 학습반에 초청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가 이 기관을 이용하게 한다.

초등협회는 3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모임이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와 그가 어린이들을 위해 보여 주신 사랑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이 모임에서 교육과 경험을 쌓게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를 초청하도록 한다.

나. 기도한다. 비회원 가족이 어떻게 하면 교회 보조 조직 모임에 흥미를 갖게 하며,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지를 주님께 간구한다.

제9단계 : 그들을 교회 사교 모임에 초대한다.

가. 그들의 관심사를 생각한다. 연극 음악, 체육은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지 묻는다.

나. 그들을 상호부조회 사교 모임이나 특별 가사 모임에 초대한다. 이러한 모임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다. 노년의 모임을 활용한다. 노년의 모임은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나 그 모임에서 심오한 복음 토론을 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노년의 모임 위원회는 여러분이 협의를 한다면 여러분이 초대하는 비회원들에게 적합한 노년의 모임을 계획할 것이다. 라. 기도한다. 어떠한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호감

을 줄 수 있는지 주님께 간구한다.

제10단계 : 그들을 교회 집회에 초청한다.

가. 신중하게 모임을 택한다. 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모임을 택한다. 주일학교, 성찬식, 침례식, 신권회, 역원이 감리하는 모임 등은 모두 좋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초청한다.

1. “형제님은 말일성도에 관해서 많이 듣고 읽으셨습니다. 저희 교회 정규 집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형제님과 가족을 모시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2. “저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계시와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명 가운데는 성찬식에 참석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함께 참석해서 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형제님께서 성찬식이 특별한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필름과 슬라이드에 담은, 물론 소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회원이 선교 사업을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다. 기도한다. 가족을 만나기 전에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제11단계 : 간증을 드린다.

가. 여러분의 간증이 절정을 이루게 해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인 모든 노력은 여러분의 간증을 드리는 것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이끌어 왔으면 그들도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자 할 것이다. 용기를 가지라.

다음과 같은 말은 좋은 예가 된다.

1. “우리는 복음에 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복음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형제님께서...”

2. “기도란 참으로 훌륭한 것이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진리를 알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였읍니다. 나는...”

3. “우리는 이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형제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 간단명료하게 간증한다. 간단히 간증을 드린다. 심오하고 영적인 경험이나 시현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귀한 것이지 이제 막 복음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다.

다. 기도한다. 지금은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이다. 여러분을 통해 그의 영이 감화를 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

제12단계 : 그들에게 가장 귀한 질문을 던진다.

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특별히 준비된 질문은 없다. 여러분이 택한 방법은 여러분의 가족이 준비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1. “형제님께서 주님이 지상에 다시 그의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에 관해 좀더 알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2.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복음을 전



그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한다. 11

하실 때에는 그의 교회가 하나 밖에 없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많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님은 주님의 교회가 오늘날에도 옛날의 그의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님은 우리가 왜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3. “형제님께서 오늘날 지상에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가 진정한 예언자인지 알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4. “형제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물몬경이 있는지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그들의 관심사를 활용한다. 그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교회의 프로그램(계보, 청소년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등)을 말하

고 그회의교회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은지를 묻는다.

다. 다시 한 번 시도한다. 만일 그들이 현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면 계속 우정을 유지하고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살핀다.

라. 기도한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더 배울 수 있게 하나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한다.

최종 단계 : 선교사에게 부탁하여 그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르치게 한다.

가. 더 배우고 싶다는 그들의 뜻에 대한다. 그들이 더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라는 ____ 일 선교사를 우리 집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오셔서 교회에 관한 토론을 해주지지 않겠습니까?”

나. 그들이 날짜를 택하게 한다. “화요일과 수요일 중 어느 날이 좋으시겠습니까?”

다. 그들을 편안하게 모신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의 집에서 편안하게 느끼고 영적인 분위기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분위기와 활동을 잘 조종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을 배우는 동안 여러분이 보여 준 성의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사에게 알린다. 구도자를 가정 복음 교사에게 소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곧 선교사와 연락을 취할 것이다.

마. 기도한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줄 수 있는 분위기로 차게 해주도록 간구한다.

왜 선교 사업을 하나?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선교 사업에 관한 분명한 계명을 주셨다. 1832년 이래 간증을 지닌 모든 회원은 그의 “이웃을 경교”(교성 88 : 81)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때부터 교회의 대관장은 끊임 없이 선교 사업을 장려하여 왔다. 1912년 대관장단은 스테이크와 선교부의 개종 활동 협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내용의 수정이 있었으나 원리만은 변함이 없다.

1. 선교 사업을 이행하는 책임은 모든 회원에게 있다.

2. 스테이크나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선교 책임을 이행하는 교회의 회원을 도와야 한다.

3. 교회의 모든 조직이나 프로그램은 개종 활동을 돕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4. 가정 복음 교육은 교회 회원에게 선교사나 교회 조직의 도움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5. 선교 사업은 와드 선교 책임자를 주축으로 와드 신권 집행 위원회와 와드 평의회를 통해 협의되는 와드 및 지부 중심의 활동

이다.

이상과 같은 지침은 선교 사업이 진전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는 우리의 간증이 주님의 다음과 같은 간증에 앞서기 때문이다.

“너희 간증 뒤에 지진의 간증이 있어...너성의 음성과 번개의 음성과 폭풍우의 음성과...간증이 있다.”(교성 88 : 89-90)

18,000명에 이르는 복음 선교사와 수천의 스테이크 선교사가 이러한 간증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그들은 모든 교회 회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한 의무 이외에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기쁨, 영광, 승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가져다 준 것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인간의 가치를 중히 여기시는지를 일깨워 주셨고(교성 18 : 10-16 참조), 우리가 인간을 구원할 때 큰 기쁨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

선교 사업을 귀찮은 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으나 그의무의 이면에는 영원한 기쁨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승영에 이끈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일로써 승영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정당하게 영원히 자신을 승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교회 정사, 5권 385페이지)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기쁨과 발전을 약속받는 것은 분명한 일이나 우리는 이미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세상에 올 사람들에게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자.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분과 협약을 맺었다.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의 계획을 생각하셔서 제의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구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는 주님과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구원을 제공하는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지신 의무이나 이 위대한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스스로 짊어진 의무나 기쁨, 노고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큰 영광을 안겨 줄 수 있다.”(제보 협회를 통한 교회 봉사, 29페이지)

십대 소년 목격자의 증언

고든 알 부캐넌

이웃

나는 당시 8,9세 남짓한 소년이었지만 그 때 할아버지가 더듬거리면서 한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치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그는 나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든, 난 아주 늙었어. 난 이제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지. 하지만 지금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난 내 손자와 또 그 애들의 아이들에게 예언자가 순교할 때 나도 나부에 같이 있었다는 걸 알리고 싶단다.”

그의 노구는 떨렸으며, 내가 그의 마음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느껴 무서워 떨 때까지 그는 나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힘없는 눈이 빛을 발했으며, 부드럽고 가냘픈 음성이 얼

음장같이 차고 굳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감히 손을 대다니, 몸서리가 쳐지는구나.”

그는 한숨을 내쉬고 잠시 몸을 고정시켰습니다. “카테지 감옥에서 예언자의 시체를 내올 때 나는 그곳에 있었다. 나는 피에 물든 시체를 보았어. 가족과 이웃 사람들의 슬픔에 젖은 절규도 들었지. 흐느껴 우는 아이들을 보고 위로했었지.

“나는 예언자의 자녀들과 잘 알아 놀 함께 놀았었어. 그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내가 그들의 집에 놀러 가기도 했었지. 이제 그들도 나 처럼 아버지를 잃은 거야. 예언자는 적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단다. 내 아버지도 적의 온갖 박해와 추방과 질투에 견디다 못해 진리를 위해 순교당했지.

“나는 폭도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모래 주머니를 대신 땅에 묻고, 시체는 은밀한 장소에 묻는 것도 보았단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 말을 들어 봐라. 네가 꼭 알아야 하기에 이 말을 하는 거란다. 예언자가 카테지 창문에서 땅에 떨어진 후 폭도들은 그의 몸에 손을 대려고 달

려 들었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포악스런 행동을 묵인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폭도들 사이에 번개를 내리셔서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단다. 그들이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어라. 그들은 도망했고 지금도 도망하고 있으며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 쫓기고 있을 거야.”

힘이 빠진 할아버지는 “그날이 이르면 꼭 내가 심판대에 증인으로 서고 싶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졸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는 전에 보지 못하던 빛으로 눈이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의 팔을 잡으시면서 떨리지 않는 음성으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애야, 나를 쳐다 보고 내 말을 잘 들어봐. 난 네가 그곳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사실을 들어 주기를 바란다. 예언자를 실제로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주기 바란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주기 바란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회복하셨으며, 그 교회는 결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될 거야. 자 애야, 내가 한 말을 기억해야 해. 네 할아버지인 나는 그때 14살로 그곳에 있었으니까.”

카테지 감옥에서
예언자의 시체를 내올 때
나는 그곳에 있었다.



편집자 주 : 아치발드 부캐넌 (1830-1915) 가족은 1835년 일리노이주 리마에서 교회에 들어 왔다. 그는 1852년에 유타주에 왔으며, 엘크 마운틴 인디안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고, 후에 수년 동안은 브리검 영 대관장의 우테 인디안의 통역자로 봉사하였다. 부캐넌 형제는 세비어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고든 부캐넌 형제는 솔트레이크 신전 인봉 보조 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솔트레이크 빅 코튼우드 스테이크, 빅 코튼우드 제12 와드 회원이다.

예언자와 선교사업

요셉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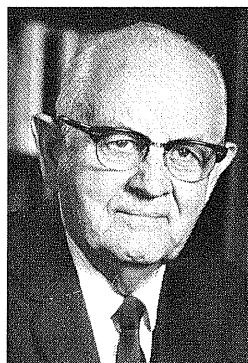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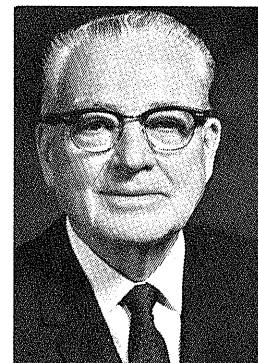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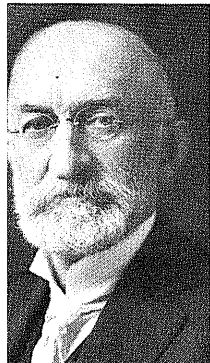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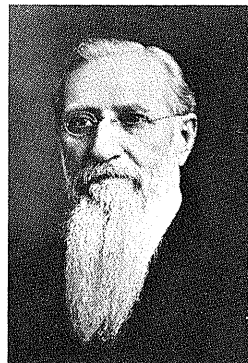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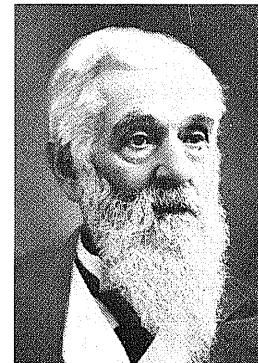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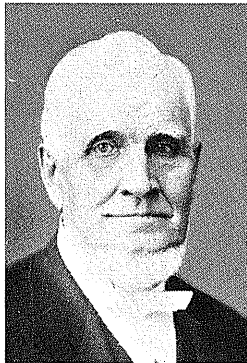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조셉 에프 스미스



버 제이 그랜트

조지 알버트 스미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 리

스펜서 더블류 킴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소년 예언자에게 나타나신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는 선교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교회였다. 지상의 어떠한 조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책임을 맡아 오지 못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13페이지)

교회의 역대 대관장은 모두 위대한 선교사였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후일에 교회의 대관장이 될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를 만나 개종하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며, 또한 예언자가 선교사로서 봉사하면서 얻은 경험도 들려 준다.

요셉 스미스

요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면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한 유일한 예언자였다. 교회가 유년기로서 첫발을 내디딜 복음이 회복된 첫째 해에 요셉은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몸소 맡아 왔다.

교회 역사과의 기록 보관소에는 1883년 말★ 당시 요셉의 제1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과 서부 뉴욕에서 개종한 후리맨 닉커슨과 함께 캐나다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기록한 14페이지에 달하는 낡은 가족 표지의 요셉의 선교 일지가 보관되어 있다. 요셉은 거의 매일 일지를 기록하였다. 일지의 반은 그가 직접 적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다. 그는 성공적인 선교 사업의 세부 내용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이 진실한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관심, 실망, 성공,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등을 모두 기록하였다.

닉커슨 형제가 마련한 소마차를 타고 이 세 사람은 10월 5일 커틀랜드로부터 동부를 향해 떠났다. 6일 후에 요셉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마음에 평안을 느낀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가족들이 걱정된다.”(일지, 7페이지)

다음날 저녁 그는 계시를 받았다. (교성 100 편) 이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그와 시드니에게 그들의 가족이 모두 안전하게 그의 보호 아래 있으니 안심

하라고 하였고, 그들이 있는 주변 지역에는 그들의 간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여행을 계속하며 마음으로 기뻐하라” (교성 100 : 12) 고 가르침을 주셨다.

이 세 사람은 캐나다로 가는 도중 여러 차례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받았다. 대개의 경우 그들의 설교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요셉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성도들에게 영을 부어 주시는데, 나는 특히 이 점에 대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10월 27일은 선교 여행이 절정에 이른 큰 성과를 거둔 안식일이였다. 요셉과 시드니는 먼저 “마운트 프레젠티에서 많은 회중에게 설교를 하였으며” 이것이 끝난 다음 요셉은 “열 두 명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닉커슨 형제의 두 아들인 모세와 엘리자도 침례를 받은 사람중에 끼어 있었다. 요셉은 이렇게 기록했다. “다른 사람들도 크게 감명을 받아 또 다른 집회를 갖기를 원했으나 나는 다음 날로 모임을 약속했다. 28일 월요일. 다시 2명에게 침례를 주고, 안수하여 성신의 은사를 주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크게 임하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이 깃들었다. 하나님이니시여,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알게 되도록 이 사업을 진척시켜 주옵소서. 아멘.” (일지, 16페이지)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설교를 마치고 나는 2명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물가에서 안수하였다. 지난 밤에 우리는 이 에프 닉커슨을 장로로 성임하였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매가 있었는데 이를 본 모든 성도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하나님이니시여,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이들 가운데 많은 은사를 보내 주옵소서.” (일지, 17페이지)

선교 여행은 끝났고, 한 달 동안 본부를 떠났으므로 커틀랜드로 되돌아 가야 했다. 이들이 커틀랜드로 돌아오는 데 닷새가 걸렸다. 커틀랜드에 돌아오자 요셉은 선교 일지에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였다. “주님의 약속대로 가족이 모두 무사하다.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그의 성스러운 이름을 받들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브리감 영

브리감 영은 1830년 복음을 처음 들은 때부터

☆ 요셉 스미스, 1832년부터 1834년까지의 일기. 5-18페이지. 자관 기록. 요셉 스미스 전집,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말일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캐나다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에 관한 이 기록이 후에 요셉 스미스가 쓴 교회 정사 1권 416-23페이지에 기록되었음. 대개 그 책에 기록된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1837년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도보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브리감 영과 히버 시 킴볼은 1839년 9월 몬트로 우즈를 떠나 영국으로 갔다. 그들이 오하이오 커틀랜드에 도착했을 때 킴볼 장로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브리감 형제에게는 그래도 1요크 실링(약 12센트)이 남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한 경비를 계산해 보니 프레젠티 가든에서 차비로 가지고 떠난 1,350불보다 훨씬 많은 8,700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마일 당 8내지 10센트씩을 주고 400마일의 거리를 마차로 왔으며, 50센트씩 주고 하루에 세 끼를 먹었으며, 숙박료도 하루에 50센트씩을 지불하였던 것이다. 브리감 형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트렁크나 옷 속에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의심했으나 나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그 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를 아는 하늘의 사자가 우리를 위해 그의 트렁크에 넣어 준 것임에 틀림없다.” (레온 알 하트슨, 사도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데저렛 출판사,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1971년, 47페이지)

존 테일러

교회의 3대 대관장인 존 테일러 형제는 위대한 신앙과 확신을 지닌 분이였다. 그는 뉴욕으로 가서 월포드 우드럽을 만나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프랫 장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에는 1센트밖에 남지 않았으며, 영국까지의 여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테일러 장로는 여비가 있느냐는 물음에 충분히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프랫 장로는 테일러 장로에게 자기의 책을 출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때에야 프랫 장로는 테일러 장로가 “충분히”있다고 한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옷도 잘 입었습니다. 형제님은 저에게 훌륭한 숙식도 제공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나에게 아직 1센트가 남아있고 아무 빛이 없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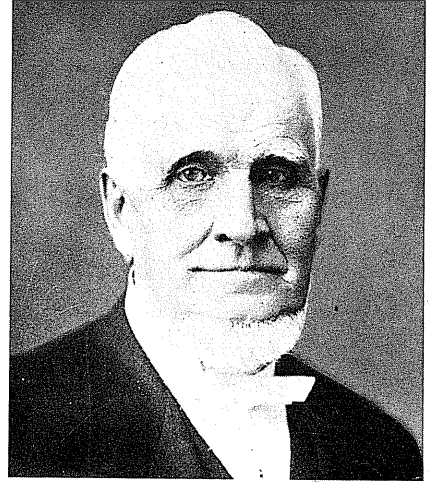
영국으로 떠날 시간이 다가 왔을 때 테일러 장로는 돈을 모아 가지고 온 장로들에게 그 돈을 프랫 장로에게 주도록 말하며 자기는 사양하였다. 그는 우드럽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서 배표를 사십시오. 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은 그에게 그렇게 일러 주었으며, 그는 주님의 영이 자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나 자기의 배삐는 물론 동행하기를 위한 테오도르 러터 형제의 배삐까지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부받았다. (하트슨, 같은 책, 77-79페이지)

윌포드 우드럽

윌포드 우드럽의 개종 이야기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진정한 조직은 지상에 존재해 있지 않으나 곧 고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은사와 권능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젊은 시절까지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않았다. “영원한 복음의 원리가 나에게 처음 전해졌을 때 나는 아무런 의심없이 이를 믿었으며, 첫 설교를 들은 즉시 침례를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사실임을 강력하게 나에게 간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833년 겨울 제라 펠시퍼 장로와 엘리야 치니 장로가 우드럽의 집을 방문하였다. 윌포드와 그의 형제인 아즈몬은 마침 집에 없었으나 아즈몬의 아내는 자기 남편과 그의 형제인 윌포드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가정에서 대화를 나누기를 몹시 기대하고 찾아 왔다. 그녀는 이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였으며 그의 남편이나 형제가 그들의 설교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물론 선교사들은 집회를 학교 건물에서 열며 이 사실을 전 마을에 알렸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험담을 윌포드 우드럽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형수님이 그날의 집회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즉시 말에서 내려 저녁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학교로 달려 갔습니다. 가는 길에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영을 보내 주시어,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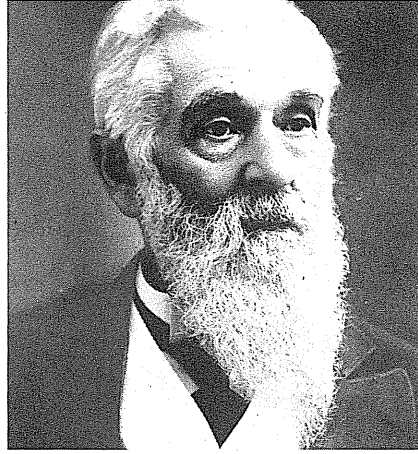
“집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참석한 사람들이 많아 그곳이 이미 꽉 차있는 걸 알았습니다. 형 아즈몬은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이들이 전하는 말을 몹시 듣고자 했습니다. 나는 사람 속을 뚫고 들어가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맨 앞 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펠시퍼 장로는 개회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태도와 분위기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노래를 마친 다음 그는 한 시간 반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으며, 그는 물론 경의 신성함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을 강력하게 간증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한 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성령이 그것의 참됨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치니 장로는 다시 일어나 펠시퍼 장로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다시 간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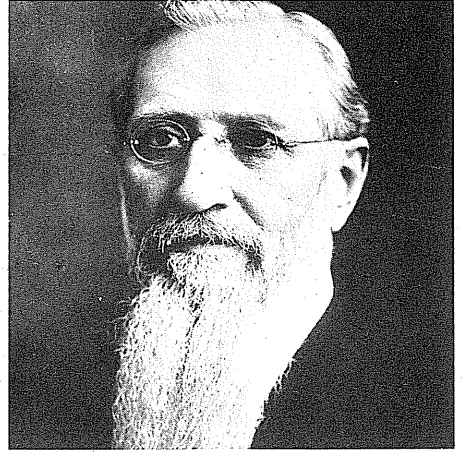
“이때 이 선교사들은 회중에게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누구라도 나오니 나와서 말을 해도 좋다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 장로들이 전한 메시지의 진실됨을 나에게 증거하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나는 이웃과 친지들에게 이들을 반대하지 말도록 권고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앉았을 때 형인 아즈몬도 나와 비슷한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몇 사람이 더 간증했습니다.” (하트슨, 같은 책, 106-108페이지).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조셉 에프 스미스

로렌조 스노우

로렌조 스노우가 회복된 교회에 관해 처음 들었을 때는 군대에 흥미를 느낀 유능한 대학생이었다. 그의 누이인 에즈라 알 스노우는 교회에 이미 개종하여 그를 개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스노우 대관장은 요셉 스미스의 부친으로부터 크게 감화를 받아, 그가 자신에게 미친 놀라운 영향력을 이렇게 술회하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말일의 진실됨을 알려 주실 것이며, 형제님은 곧 침례를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나는 복음의 원리를 공부하였고...가장 위대한 일에 관해 예언자가 하는 설교도 들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성령에 힘입어 천사장의 음성으로 말을 했으며,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전신에서는 빛이 났으며, 그의 얼굴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이 휘날려 없어질 때처럼 흰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마침내 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간증을 얻고 침례받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을 통해 얻은 나의 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온갖 세상적인 야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더우기 나는 인생에서 최고의 영예를 달성하도록 나를 주시하는 부유하고 자존심에 찬 친구와 친척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기대를 모두 저버리고 당시 가난하고 무지하며 멸시받던 사람들로 알려진 물몬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 나의 자만심과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모두 버리고 어린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침례의 물에 들어 갔으며, 사도라 불리우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의식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스노우 장로는 계속해서 교회를 알아 보았고,

1836년 6월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침례를 받았다. (하트슨, 같은 책, 130페이지)

조셉 에프 스미스

조셉 에프 스미스는 15세가 되는 해에 하와이로 가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2년 후에 젊은 선교사인 찰스 클레멘트 허스트(하와이 선교 부에 새로 온 선교사)의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나 창고와 집회소가 전소되었는데, 가방과 기타 소유물을 이곳에 둔 선교사들은 옷과 일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다른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의 소유물도 이 건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그가 잃은 물건 중에는 옷가지와 축복사 하이람 스미스로부터 받은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도 있었다. 이 책 겔피 속에 그는 그의 장로 성임 증서를 끼워 놓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재가 되었는데도 그의 선교사 증서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끝이 약간 그을린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증서를 끼워 놓은 책이 완전히 재가 되었는데도 그 증서에 적힌 글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트슨, 같은 책, 175페이지)

히버 제이 그랜트

히버 제이 그랜트의 선교 경험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는 내가 알기로 내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이 태버나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었고 고집이 많았으며 성격이 모질던 나의 형을 청중 가운데서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이 건물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이 사업의 거룩함을 알아 보기 위해 하나님께 빛과 지식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만일 내가 이 모임에서 말씀을 하도

록 부탁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나에게 영감을 주고 모든 성실한 말일성도가 믿는 성령으로 인도해 주어, 나의 형이 내가 나의 능력 이상으로 말을 하였고, 바로 주님의 영에 영감을 받아 말했다는 것을 나에게 와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그러한 느낌을 나에게 와 고백한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거룩함을 증거해 주었다는 점을 지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성경 참조집을 꺼내어 연설대 앞에 올려 놓고...주님의 영감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30분간의 말씀을 마칠 때까지 그 책을 한 번도 열어 보지 않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의 30분을 거의 모두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간증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겪은 놀라운 일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셉이 진정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려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내 사무실로 찾아 와 ‘히버, 난 어제 집회에서 너의 설교를 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설교를 들으신 게 이번이 처음이지요?’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어’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늦게 집회에 참석해서는 복도에 있었지. 가끔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기도 했고, 그렇지만 어제와 같은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 넌 너의 능력 이상으로 이야기를 했어. 주님의 영감을 받아 이야기를 했지’ 내가 바로 전날 기도를 드린 것과 똑같은 말을 그가 한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 이제 좀 달라졌어’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무슨 설교를 했지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에 관해 말했지’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는 형님이 들어보셨겠지만 어제처럼 말한 적이 없었어요. 형님은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곤봉이라든가 들고 때리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자기 능력 이상

으로 말하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까?’

“다음 주 안식일에 그는 내게 와서 침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하트슨, 같은 책, 216-17페이지)

조지 앨버트 스미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판장은 미국 남부 여러 주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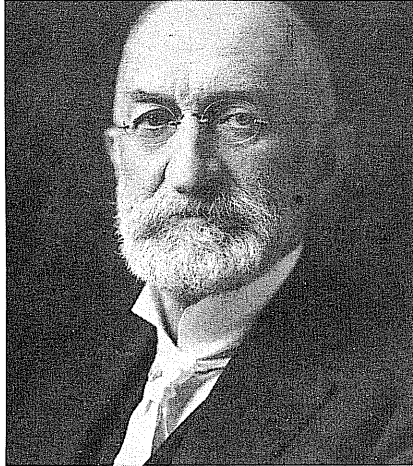
“우리는 숲으로 둘러 싸인 시골 어느 마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낮에 우리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우리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있던 한 성도가 그날 밤을 자기 집에서 묵도록 초청하였습니다. 판자로 지은 보잘 것 없는 집이었습니다. 방 두 개가 있었고 작은 통나무 마루가 고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섯 명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메웠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밖에서 떠드는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자리에 일어나 앉았을 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들려 왔습니다. 달이 높이 떠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킴블 장로는 재빨리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문쪽으로 다가 왔으며, 욕설을 퍼붓고는, 물몬들을 모조리 총으로 쏘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나오라고 범석이었습니다. 킴블 장로는 내게 일어나서 옷을 입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나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리에 누워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순간 우리가 있는 방으로 총알이 날아 왔었습니다. 폭도들은 네 그룹으로 나뉘어 집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사방에서 총탄이 날아 왔습니다. 잠시 조용해지더니 또다시 총성이 울리고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 가장 무서운 일을 당하면서도 가장 침착하게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하트슨, 같은 책, 241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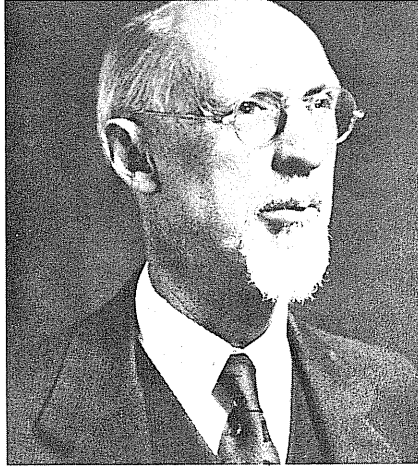
데이비드 오 맥케이

1899년 5월 28일 스코틀랜드 대회를 맞아 글라스고우에서는 뜻깊은 신권회가 개최되어 그곳에서 복

☆ 비 에프 그랜트는 히버 제이 그랜트의 이복형이다. 그는 40세에 침례받았다.



히버 제이 그랜트



조지 알버트 스미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음 전도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사명감과 사랑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었다. 맥케이 대관장은 당시의 일을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평화롭고 거룩한 영이 온 방안에 가득 찼다. 깊이 감명받은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느낌을 말했다.

“영 형제가 보고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찰스 울펜덴 장로가 이렇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이 방은 천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때에 모두 주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으며, 거룩한 힘을 느껴 그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 선교사들은 기뻐 눈물을 흘렸으며 다른 사람들도 흐느낌을 참지 못하였다. 그때의 그 울음은 남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울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보고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각자 받은 축복과 시현에 대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제임스 엘 맥트린 형제가 그 모임에서 말씀을 하였는데 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받아 주셨으며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이 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그의 말을 계속했다.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방은 천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말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두 명의 형제를 지명하고도 그들의 수호 천사가 그곳에 참석해 있다고 말하고, 나를 돌아다보면서 그의 말을 계속했다. ‘데이비드 형제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형제님을 것처럼 까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고 제십니다. 신앙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형제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는 대관장단의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나는 1899년 3월 17일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

으로부터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국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성별되었습니다. 나의 형제인 리차드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떠났습니다.

“1899년 5월 12일 오후 나는 나의 부친인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70인에 성임되었습니다...”

“6월 2일 우리는 아일랜드 해안에 닿았으며, 나는 나의 옛 조국 땅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6월 3일 우리는 한쪽으로는 아일랜드를, 다른 한쪽으로는 웨일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를 떠난 지 이주만에 리버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본부로 인도되었고 여기서 각자의 임지로 배치되었습니다. 나는 노팅햄 대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온 리차드는 리즈로 보내졌습니다.

“나는 6월 4일 오후 4시에 리버풀을 떠나 같은날 저녁 7시 30분에 노팅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교사 숙소에 도착했으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땅에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거리에 있던 젊은이들이 내 주위에 몰려 들더니 이런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아가씨들 모두 나를 따라 냉정한
물몬이 사는 솔트레이크
시티로 갑시다.

내가 그들이 노는 거리로 나가자 그들은 모두 달아났으나 그것이 내가 임지에서 받은 첫 환영 인사였습니다.

“6월 6일은 내 생애에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내가 영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지 채 한 달도 안된 때입니다. 시가는 고향의 길과는 달랐으며, 길이 매우 꼬불거렸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스물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 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다섯 가정을 방문하였으나 대개의 집은 우리를 보자 그대로 문을 닫아 버렸으며, 우리는 많은 욕설만을 들었으나 나는 어떤 일도 내게는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10킬로 내지는 13킬로를 걸었습니다. 20킬로를 걸은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걷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걸어만 다녔지만 내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걸은 적은 스탠포드사의 우토제스터에서 더비를 거쳐 노팅햄에까지 간 때였습니다. 나는 오전 6시에 출발하여 밤 열 두 시까지 걸어 노팅햄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집회를 갖기 위해서 19내지 22킬로를 걷는 것은 문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16내지는 22킬로 밖에 떨어져 살고 있는 교회 회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걷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버스를 탄 적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걸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트슨, 같은 책, 318-320페이지)

해롤드 비 리

리 대관장님은 음악을 매우 좋아하셨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많은 음악적인 훈련을 쌓았으나 10대 후반기에는 성악에도 큰 재능을 보였었다. 후에 미국 서부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음악적인 재능은 선교 사업을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리 장로의 동반자는 윌리스 제이 우드베리라는 장로였는데, 그는 한 손에는 검은 색 표지의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첼로를 들고 다녔다. 이 두 장로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즉석에서 가방을 열고 시작할 준비를 갖추고 다녔다. 우드베리 장로가 첼로를 켜면 리 장로는 노

래를 불렀다. 그들의 음악을 듣는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곤 하였다. 리 장로는 천성적인 지도자로 40여명이 침례받도록 이끌었다. (프레스톤 니블리, 대관장, 메저렛 출판사,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1974년, 437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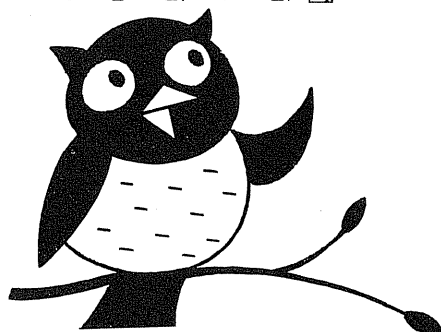
스펜서 더블류 김볼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미국 중부 선교부에서 활동적인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그러나 선교사 시절에 있었던 어느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예언자인 김볼 대관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업에 관한 말씀이다.

“선교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경전은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과 부름, 이를 실천했을 때 오는 약속과 보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임의로 명령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그 사업을 하라는 지시는 단독으로나 혹은 집단으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지속적인 지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18,000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능력있고 합당한 모든 젊은이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군대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역 대표 세미나 말씀, 1974년 4월 4일, 목요일) 〰





테마라마가 가장 행복했던 날

도일 엘 그린 글/제리 하스튼 그림

이 이야기는 테마라마라는 신앙심이 깊은 어린 소녀에 관한 실화입니다. “테마라마”란 “빛”을 뜻하기 때문에 남태평양의 작은 바히타히섬에 살고 있던 이 행복한 소녀에게는 아주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타히티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바히타히섬에서 동반자와 함께 코코넛 나무잎으로 만든 한 칸 방짜리 집에서 몇 주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테마라마는 이웃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그 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잘 알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덟 살 된 어린 소녀가 나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물건을 가리키고 그것을 타히티어로 말하면 내가 이것을 따라서 외우고 하였습니다. 의자를 가리키고는 “파라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발음을 듣고는 웃으면서 교정해 주었고, 나는 정확하게 발음할 때까지 계속 되풀이하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타히티판 물문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배우면서, 모임에 참석하면서, 방문하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우리는 코코날 나무 아래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마라마는 다시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농담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마라마, 신교를 믿는 소녀가 물론 선교사의 손을 잡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나?”

그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으나 테마라마에게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게서 손을 놓았을 때엔 양볼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어머니가 교회 회원이었으나 비회원인 아버지가 그녀의 침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테마라마는 초등학교, 주일학교, 기타 모임에 즐겨 참석하였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좋아했으며 많은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덟 번째 생일을 맞은 후부터 아버지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나에게는 언제나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 속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걸 알아요.”

나는 다른 섬으로 떠나야 했으며 테마라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타히티섬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테마라마가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에 나는 그녀가 침례를 받게 된 경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테마라마의 신앙과 간증이 커감에 따라 회원이 되고 싶은 결심도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지 못하면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난 교회가 참되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침례를 받도록 허락

하지 않으신다면 밥도 먹지 않을 거예요. 제 걱정일랑 마세요.”

물론 테마라마의 어머니는 테마라마의 뜻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정말로 그 애가 그 정도까지 생각했다면 허락을 하지”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테마라마는 타히티의 높은 산 속에서 흘러 내려 오는 맑은 냇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선교부장과 몇몇 선교사와 지부 회원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신을 부여하였고 테마라마를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후에 그녀는 이날이 그녀의 일생 중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작은 소녀보다 큰 신앙과 강한 소망을 품고 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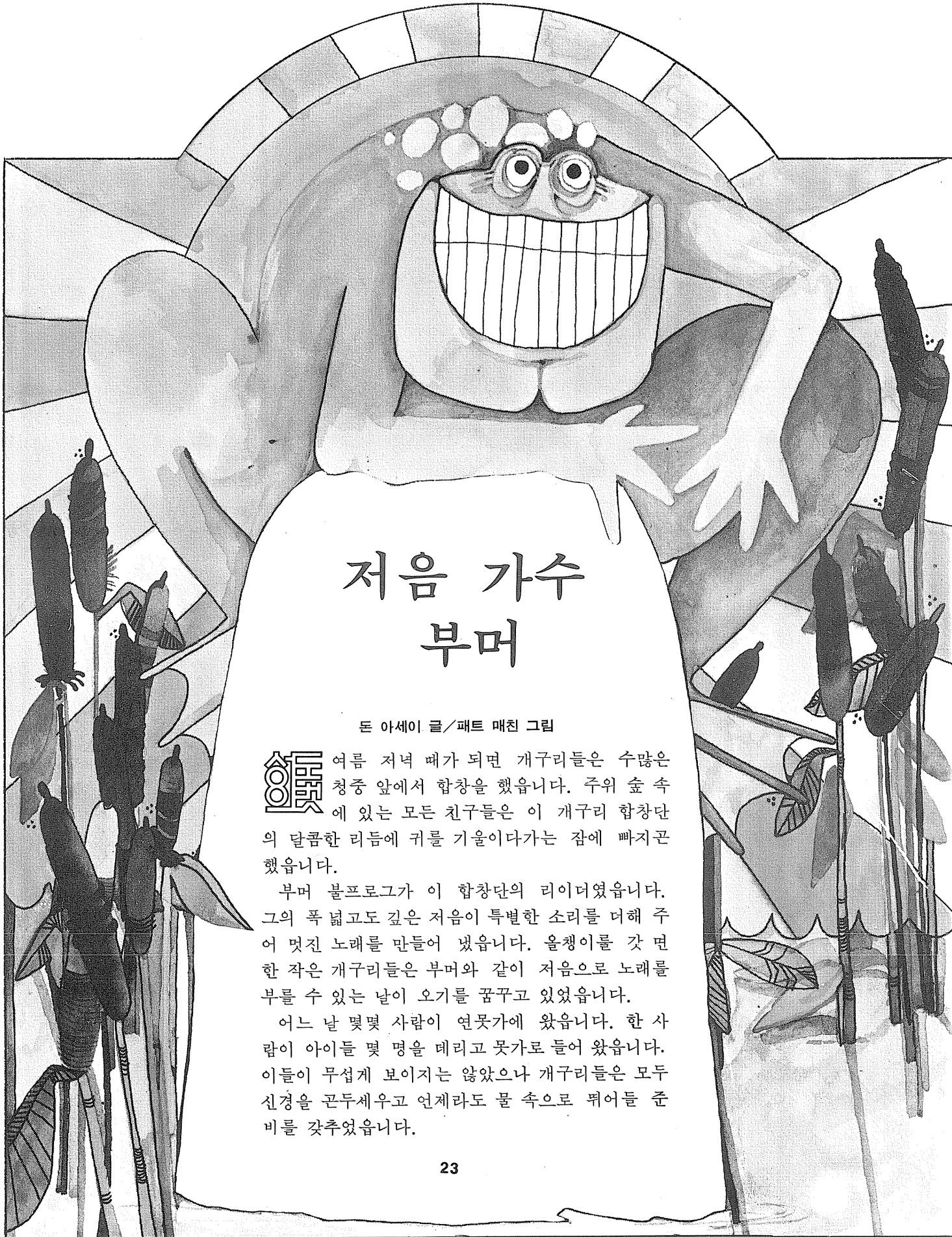
몇 주가 지났을 때 우리는 선교부장으로부터 선교사 모임에 참석하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교 본부에 도착한 후 현관 앞에 서 있다가 나는 빗속에 맨발로 흙탕물 위를 달려 오는 테마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문에 들어 서면서 나를 보고는 현관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 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타히티어로 “이아 오라 나 오에”(기쁜 생활을 기원하는 인사)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도 “이아 오라 나 오에, 테마라마. 에 메아 마이타이 아베이 오에”(잘 있었니?)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전 참 행복해요. 제 소식을 들으셨어요?”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자 그녀의 갈색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이젠 손을 잡아도 되지요?”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테마라마는 내 손을 잡을 수 있지”라고 나는 대답하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



저음 가수 부머

돈 아세이 글/패트 매친 그림

한글 여름 저녁 때가 되면 개구리들은 수많은 청중 앞에서 합창을 했습니다. 주위 숲 속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이 개구리 합창단의 달콤한 리듬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부머 볼프로그가 이 합창단의 리더였습니다. 그의 폭 넓고도 깊은 저음이 특별한 소리를 더해 주어 멋진 노래를 만들어 냈습니다. 울챙이를 갓 먼한 작은 개구리들은 부머와 같이 저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사람이 연못가에 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못가로 들어 왔습니다. 이들이 무섭게 보이지는 않았으나 개구리들은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언제라도 물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 저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챙이 부화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부머도 보았습니다.

“저기 있다. 저 큰 카테스비아나 좀 봐 저게 진짜 식용 개구리란다. 저 넓적다리와 목구멍 좀 봐 카테스비아나의 목소리는 굉장하거든” 하며 말했습니다.

물론 부머는 이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부머는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부터 부머는 다른 개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옛 이름으로 누가 부르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카테스비아나야” 하며 뽐냈습니다.

합창대는 계속 노래를 불렀으나 부머가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전혀 멋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합창단 단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머야. 나 좀 봐. 이제는 부머라고 불러서는 안되지. 카테스비아나야, 왜 넌 우리와 같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니?”

“난 내 멋진 목청을 아껴야 해요”라고 부머가 대

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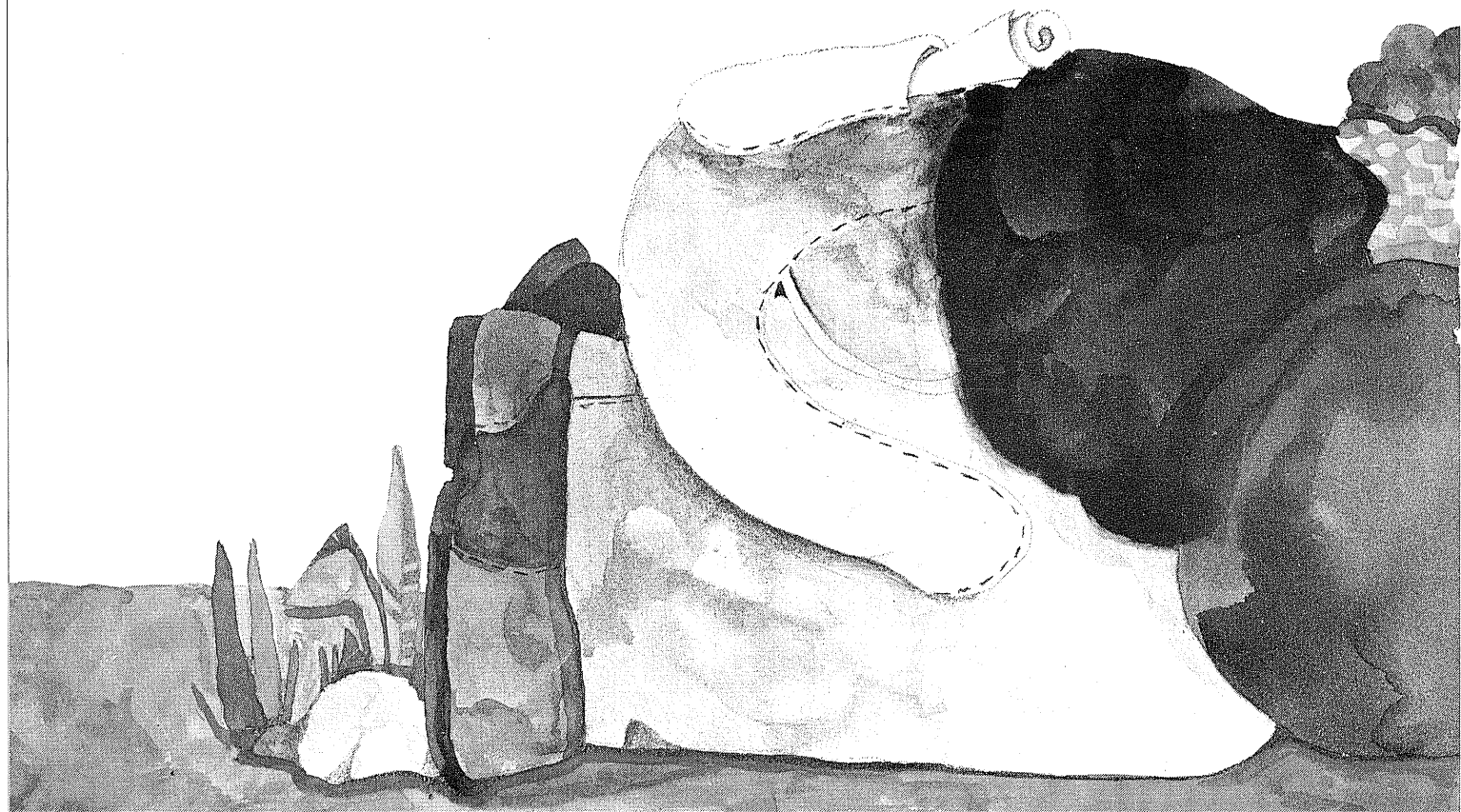
곧 부머의 친구들은 그가 항상 같은 장소에만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카테스비아나, 왜 넌 짹짹 뛰지 않고 자리만 지키고 있니?”

“난 내 힘센 넓적다리를 함부로 써선 안돼. 넌 개구리 중 표본이 되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구나!” 하며 부머가 대답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머는 허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모기나 파리를 잡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약해졌습니다. 그는 자기 입가에 오는 곤충들이나 혀로 잡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부머는 누군가가 찾아 와서 칭찬을 해주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목청과 힘센 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잘 보존된다고 생각하였습



니다. 그는 필요할 때에도 목청을 빼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다른 개구리들은 모두 부머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자리만을 지키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바위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연못에 손님들이 찾아 왔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올챙이 부화장을 가리켰습니다.

부머를 본 그 사람은 “음, 저기에 이상한 개구리가 있네. 카테스비어나 같은데 병이 난 모양이지. 살이 빠져 껍질만 남았고 뒷다리도 아주 약해 보이는군. 저런 늙은 노래도 부를 줄 모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부머는 그의 목을 빼서 길게 소리를 뽑으려 하였지만 가냘픈 소리 밖에 나오지 않

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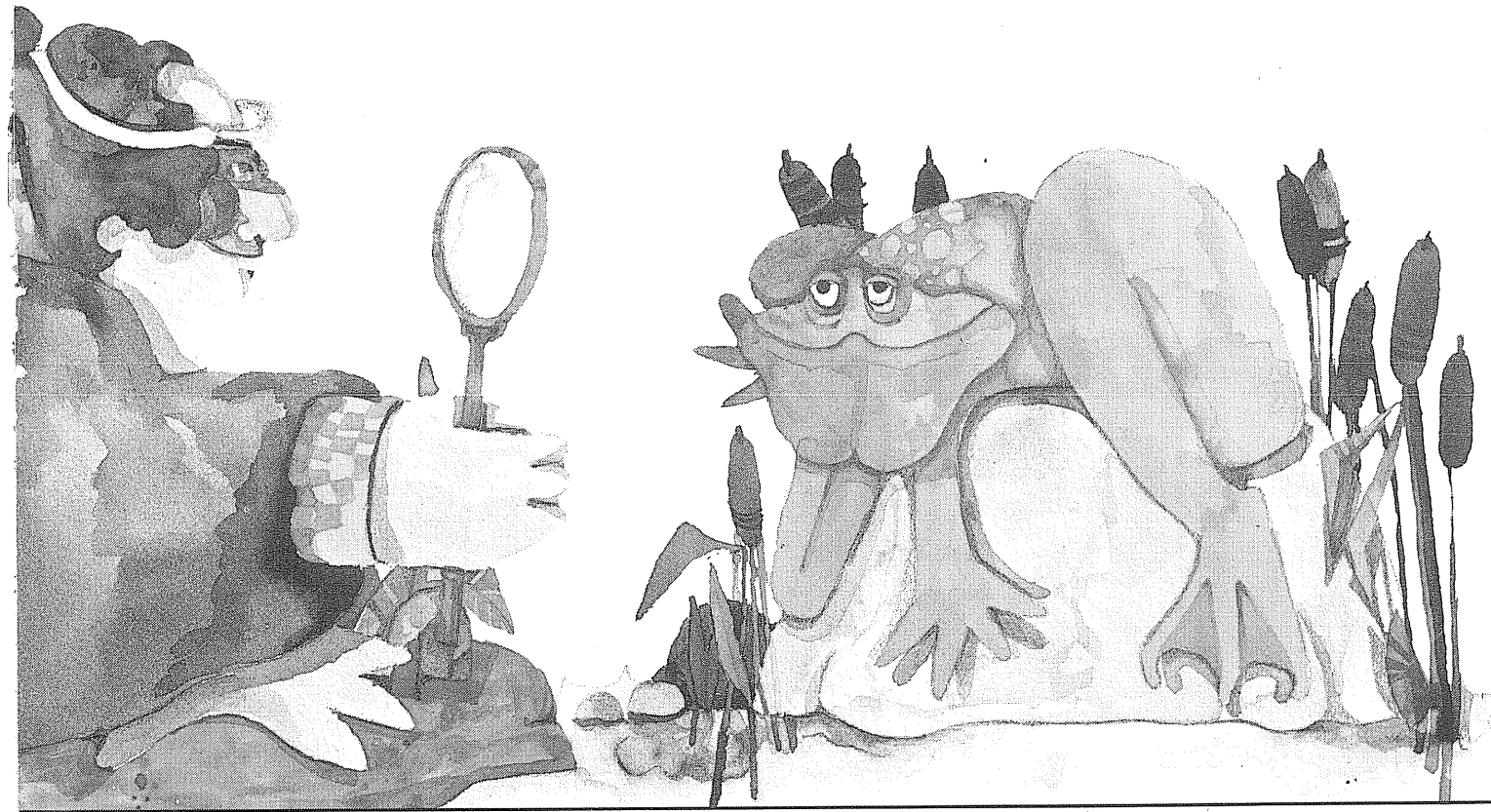
그 사람들이 떠나자 부머는 쓸쓸히 혼자 바위 위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목청을 아낀 게 좋은 행동이 아니었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그는 연못 속으로 뛰어 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위 오른쪽 물속으로 침병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리를 쓰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하고 부머는 걱정하였습니다. “이젠 난 별난 존재가 못돼! 좋던 목청도 잃고, 멀리 뿔 수도 없으니, 다시 옛날처럼 돌아 갈 수 있으면 좋겠어.”

부머는 넓이뛰기를 연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균형이 잡힌 식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점점 힘이 났으며, 고운 목청도 회복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으나 드디어 부머는 옛날과 같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아낀다는 것은 그것을 잃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고 부머는 어느날 합창 연습을 마친 후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하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88





마리아의 개종 이야기

밀드레드 제이 워머 글 / 니나 그로우버 그림

한글
영문

마리아는 정육점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빵집에서 식빵을 사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자기에게 관해 이야기하는 부인의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족이 먹을 고기를 혼자 와서 사갈 수 있는 애는 많지 않지요”라고 한 여인이 자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고깃간 아저씨가 고기를 썰 때 마리아가 얼마나 눈여겨 보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고기와 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난 엄마 대신 시장을 보는 일이 참 즐겁거든”하며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에 먹을 수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휴, 벌써 10시가 되었는데. 무더운 날쎄네!” 하 시며 아버지가 들어 오시며 냉수 한 잔을 청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마리아는 마리아의 학교와 더운 날씨와 그외 여러 가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토요일이 좋았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때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달려 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흰 셔츠에 타이를 단정하게 맨 두 청년이 대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창가로 다가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젊은 이들이 어제도 왔었는데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는 오늘 다시 오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 오십시오.” 하며 아버지는 문을 열고 이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려도 팬찮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좋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리아가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한 말과 너무도 같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와 같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장로라고 불렀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후에 교회를 조직한 젊은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들이 이야기한 사실이 참되다는 것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족은 그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초등학교에 나가게 되었으며, 그녀는 가족이 함께 주일학교나 기타의 집회에 가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밤낮으로 가족 기도를 드리게 되었으며, 마리아도 혼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가족에게 신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어, 가족이 모두 영원히 인봉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는 날 마리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름다운 흰 옷을 입고 물 속에 잠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그녀의 팔을 잡은 다음 자기의 손을 높이 치켜 들고는 간단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리아는 물에서 나오면서 행복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圖



어느 고기가 물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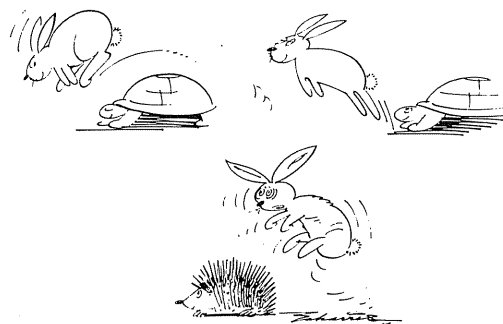
로버타 페어울

낚시줄을 따라 가서 고기를 찾아보세요



점 퀴즈 캐럴 코너

점을 이어 대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짐승을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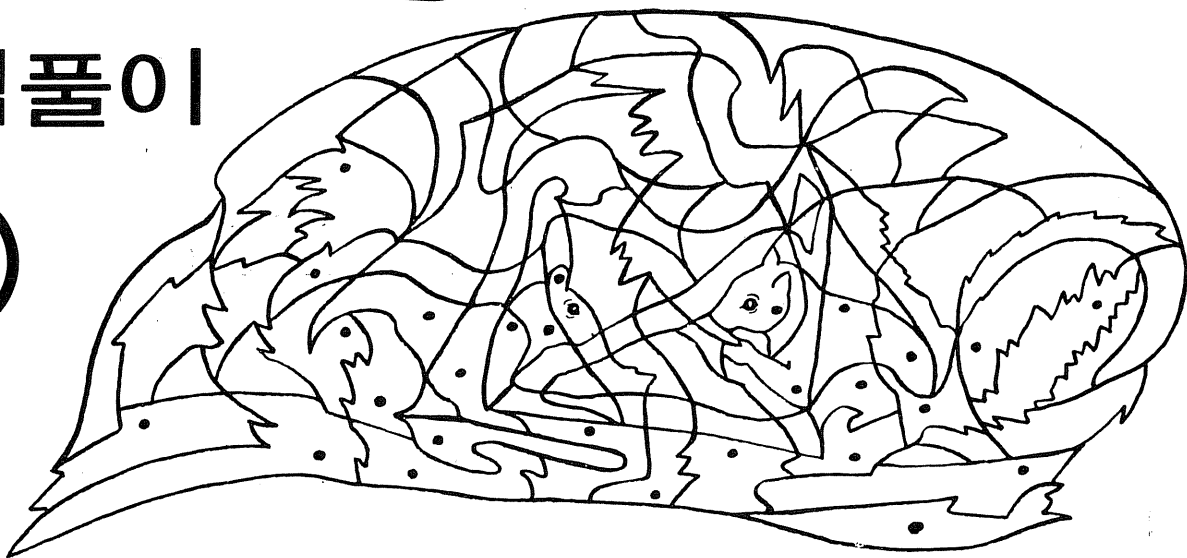


색깔 퀴즈

캐럴 코너

점이 있는칸을 색칠하여 두 마리의 귀여운 짐승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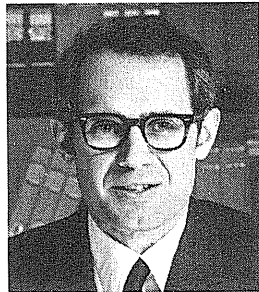
심심풀이





질문과 대답

“왜 나는 해의 왕국에 들어가
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부모
가 원해서 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가지 못할 때 받을 보상이 무엇
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요?
혹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일까
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
기 때문일까요?”



이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
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먼저 주님과
그의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
시리라”(마 6:33; 니삼 13:33) 이 얼마나 값진 약
속입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활
방법은 “주님께서 명하실 때 이를 실천하라!”(교
회 정사, 2권 170페이지)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까? 이는 주님이 하늘
에 계시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권세를 지
니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모
든 기쁨과 영예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그
의 음성과 말씀과 그의 예언자를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농장에 서서 멀리 흠어져 있는 가
축을 찾아 보고 있던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방을 주시하시던 아버지는 “저 북쪽 들판에 가축
들이 모여 있구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눈
은 아버지처럼 좋지 못해 보이질 않았습니니다. 그러
나 그 소년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그곳
에 있을 거야”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주님은 먼저 해의 왕국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믿는 이유를 설
명드리겠습니다. 나는 해의 왕국이 우리가 들어가
야 할 장소만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 해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성 88:
20-41) 이 질문의 첫 부분을 쉽게 풀면 ‘왜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나’라고 하겠습니다.

1973년 10월 대회에서 리 대판장님이 행하신 개회
사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축복사의 축복이나 살아 계신 예언자, 경전, 성령
등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증
거해 주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
생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가 거룩한 성품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 줍
니다. (벤후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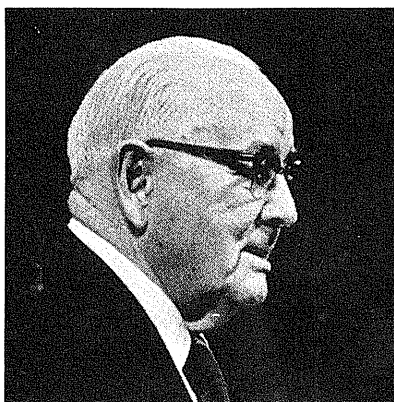
우리 인간이란 캄캄한 암흑 세계만을 보나 언젠
가 광명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 맹인파도 같다고 하
겠습니다. 그러한 맹인처럼 우리는 해의 왕국의 삶
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으나 어렴풋이 이를 알 수
는 있으며(위인의 삶이나 봉사의 기회를 통하여),
성령의 증거와 그것이 실제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것
을 위해 기대를 갖고 노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은 “왜 나는 해의 왕국과 같이 내가 분명히 알고 있
지 못한 세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라고 질문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
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
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
이 해의 왕국의 삶이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은 주님
께서 말씀하신 바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증거하였
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해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희
미한 달빛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교성 76:20)
자기의 동반자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원한 사랑
을 맛볼 수 있고 영원히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영원토록 따로 떨어져 혼자 쓸쓸히 지
내는 상태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교성 132:
22) 다른 사람의 삶에 기쁨을 주고 기꺼이 남을 돕
고자 하는 성스러운 힘과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지
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제한된 능력으로
남을 도우는 인물이 되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겠습
니까?

그렇다면 그 열쇠는 리 대판장님이 알고 계시고,
그 전대의 예언자들이 알고 있었으며, 예수가 몸소
가르치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는 사실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가 그를 사랑하고 믿으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
입니다.  존 코비 브리감 영 대학 행동과학과 조교수

주는 우롱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회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영적으로 여러분이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자 회견을 가질 때 흔히 “요즘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 질문에 “교회는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매우 굳건한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번 대회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전 세계에 661개의 스테이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1943년 내가 교회 본부에 왔을 때만 해도 스테이크 수는 148개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외국에는 그나마 하나도 없었으나 수 년이 지난 후 교회는 대양과 대륙을 넘어서까지 뻗어 갔습니다. 1958년 5월 롬니 부대관장님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스테이크를 조직한 이래 해외에 86개의 스테이크가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현재 112개의 선교부와 661개의 스테이크 선교부가 있으며, 1943년만 해도 비교적 소수였던 선교사가 현재 18,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인 성장을 이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찌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지요. 온갖 기회가 주어진

인생,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죽음, 영원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영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세상 도처에 330만명의 회원을 가진 우리는 또다시 발전과 성장의 한 해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집회에 참석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찾아 일합니다. 신전이 계속 세워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신전 사업은 성도의 영적인 자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종합 대학이나 단과 대학, 신학연구원, 기타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번창 일로에 있습니다. 지식이 넓혀지고 있으며 간증이 깊이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건축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우리는 거의 매일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으며, 이러한 건물은 성실하고 행복한 백성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며 항상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하

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위대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떼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5-17)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청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던져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인구 증가율보다 쓰레기가 더욱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을 깨끗이 미화하도록 권고합니다. “인간은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무너진 담은 보수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땅은 수리를 하고 지붕을 이어 칠을 하거나 아니면 제거해야 합니다. 창고나 마굿간도 수리를 해서 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잡초가 우거진 도랑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집은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골이나 도시나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창고나 짐승의 우리를 보수하거나 깨끗이 가꾸고, 보도 블록을 깔고, 개천을 청소하며, 우리의 물건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끊임없는 청결 운동을 벌이게 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청소년 그룹 지도자나 보조 조직, 신권 정원회의 지도자들에게 환경 미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시편 24:1)

“나 주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손질하며 지키게 하리라.”(모세서 3:15)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다운 상태로 보존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여러분을 혼미속으로 몰아 넣을지도 모를 일부다쳐 예찬론에 여러분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를 세상에 선포하게 한 예언자를 통해 이미 수십년 전에 이 프로그램의 종식을 선언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에게 슬픔과 가책을 안겨다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혼미 속에 빠뜨리려 하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고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자녀에게 명예와 결백과 정직을 가르치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도 독질하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도둑질, 강도, 약탈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읍시다.”(신앙개조 12조) 충성심과 진실됨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특징을 든다면 모든 회원이 술, 코피, 홍차를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 지시를 따를 만큼 용기나 간증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철저히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 중에는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교리와 성약 89편이 있습니다. 근 141년 동안 우리는 술과 독한 음료를 삼가해야 하며, 코피와 홍차가 인체에 유해하며, 담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이며 다만 상처나 병든 가축을 치료하는 데에 좋다는 계시에 담겨진 위대한 진리를 실천해 왔습니다. (교성 89편 참조)

우리는 최근에 미네소타주 어느 마을에서 모든 기관이 주동이 되어 금연 운동을 펴고 시행 날짜를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시행 날짜인 1월 7일에 271명이 담배를 끊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운동을 편 마을과 그곳 지도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우리는 또한 의학계나 기타 여러 연구 기관에서 흡연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데 동의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친한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담배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코홀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취중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술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게 크나 큰 슬픔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안겨다 줍니다. 사교상 술을 마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알코홀 중독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나 이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지혜의 말씀을 여기는 사람은 이것을 여기고는 이상한 변명을 늘어 놓읍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

를 통해 주어진 계시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예언자를 통하여 이를 계속 반복해 주셨으며, 분명히 계명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파티의 일환으로 술을 대접하는 사업체나 기타 단체의 행위를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신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많은 사람이 사교의 날로 잘못 알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하며, 활력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자극제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생활에서 멀리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진정제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리후아나나 기타 습관성 약을 복용하여 파멸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행위에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많은 고용인들이 그 날에 휴식을 취하고 예배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물건을 사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유와 구실을 뱉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날 물건을 사는 일이 없도록 당부합니다.

우리는 도박성이 있든 없든 도박장에서나 쓰는 카드를 말일성도가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마나 운동 경기 등에서 도박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내일 아침에 있을 복지 모임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것들이 토론될 것입니다. 우리



는 부모로서 갖는 책임을 다른 단체에 의탁하려 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 년 사용할 양식을 저장해 놓으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때를 당하여 사람들을 돌볼수 있는 충분한 기금이나 물자가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축되기를 바라며,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어려운 때를 극복해 갈 수 있게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감독님이 현명하여, 도움을 주는 데 인색하거나 지나친 관용을 베풀지 않기를 바라며,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정직하고 공정하고 현명하게 도움의 손길에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때가 닥쳐 오게 되면 빈항아리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뒷마당 공터를 갈지 못하고 유실수를 심어 식량의 부족을 배꿀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독립해서 살 수 있게 계획하셨으나 우리는 많은 농부가 낙농품 상점에서 우유를 사며, 땅을 소유한 사람이 가게에서 채소를 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트럭이 가게에

상품을 날라다 주지 못한다면 굶주림을 당하게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신조로 살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출 20:9)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 드는 것이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이나 여행 등에 마음을 쏟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 사정은 일반 대중에게 여행과 놀이와 음주의 기회를 더욱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상점이나 식당 기타 여러 곳에서의 낭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회가 끝나면 많은 음식이 쓰레기 통으로 들어 갑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낭비하거나 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갖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기 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어려운 때가 다시 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기 수입과 그 외의 것까지도 모두 써버리는 사람이 그러한 때를 당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됩니다.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수입 이상으로 지출하며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위험한 때를 당해 돈을 갖지 못하고 빚을 지게 되지는 않는지요?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크게 줄어 든다면 얼마나 운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홍장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속된 표현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지 일컫지 말라”(출 20:7)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나 합당한 설교 이외에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경죄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죄였습니다. 불경이란 겁장이자 자신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나 지도자가 외설 잡지나 사진에 관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쓰레기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는 정상적이고 만족스런 정신의 양식처럼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작가는 외설 소설로 정신 환경을 오염시키면 기쁨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으로도 금지시키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외설 문학과 저속한 성적 충동과 성도착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리킹(나체 질주)이나 이와 비슷한 속된 성적 유희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저속하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젊음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타락한 세경에 빠져 드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

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추한 세상의 풍조를 일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외설 문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와 직결됩니다. 살인, 강도, 강간, 윤락 행위, 상업화된 죄악의 씨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부도덕의 온상에서 자라게 됩니다. 죄와 외설 문학 사이의 관계를 성 범죄 통계 자료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의 가치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온갖 노력을 다 해서라도 그들의 자녀를 이러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당부합니다. 우리는 매사를 허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면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오늘날의 추세가 이 시대의 도덕의 근간을 썩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사인 리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주의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죄없는 자가 처형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가장 걱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인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환자입니다. 그는 병을 앓고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사회의 낙오자입니다. 사회가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왜 그가 비난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어린 아이들을 징계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범죄율은 인구 증가율의 9배 이상을 선회한다

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첫 아기의 삼분지 일이 혼외의 관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에 약 400,000명이 혼외 관계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부진아의 반수 이상이 임신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미국의 백만 이상의 여성이 불법 낙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체면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그 결과 매년 8,000명의 여성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의 사망율 중에서 자살이 그 으뜸을 차지합니다.

어느 인기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엄한 도덕의 표준 때문에 오늘날 전반적인 사회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근엄한 도덕의 표준에 근거를 두고 오늘날 인간의 모든 행위에 화를 낼 것이다.” 그리스도는 편안과 안일만을 일삼는 우리의 생활 태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도덕적으로 이완된 상태를 꾸짖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폭력에 의지하고 사랑과 거룩한 생활 태도를 거부하는 행위를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안일을 최고의 낙으로 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이 근엄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

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15-16)

가정은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모든 가정은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는 딸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권고를 무시하면 아무런 변명의 구실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많은 부모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양쪽이나 일방의 부정으로 인해 이혼이나 별거 생활을 하는 가정은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되새겨 보게 합니다.

“너는...간음하지 말라...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59-6)

우리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신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파멸과 고통으로 이끌려 열길로 빠져 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7-28)

마음의 음욕과 눈의 음욕과 육신의 음욕이 우리를 죄로 이끍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지니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여성이 남편을 존중하고 가족이 함께 있는 가정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는 자신의 덕성을 망쳐 버리게 이끄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인생을 망치는 성적인 부도덕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지 않도록 극기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일찌기 온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하한 형태의 동성애도 모두 죄입니다. 외설 문학이 바로 이러한 죄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엔 중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지하고 사악하여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개념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많은 여성이 남성의 복장을 하고 행동하며 머리를 기릅니다. 남성은 점점 여성처럼 옷을 입고 머리 장식을 하며 행동합니다. 인생의 높은 목적이 절증하는 단성 이론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으며 다시 이들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자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성을 바꾸는 사람은 참으로 그들의 창조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이 또 다른 나팔 소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결혼의 성스러움과 가정의 거룩함이라는 순결 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 기독교인은 야수가 되고 맙니다.” (대회 보고, 1938년 10월, 137페이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묵인하는 이 세상의 온갖 죄가 다 청소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최근에 영화 잡지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계약으로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제도란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회 여론만 없다면 그것은 유토피아(이상향)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어느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결혼이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제도가 이런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회원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결혼한 정상적인 부부라면 모두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구를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룸이 마땅하니,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49:15-16)

결혼과 가족이 없는 삶이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혼인 이외의 성관계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며, 많은 사람이 이 위대한 진리에 눈이 먼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것처럼 속되고 위험스러운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되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부도덕이나 부정에 의한 이혼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들의 자녀를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되어 주는 책임을 상실한 사람은 그 책임을 따지는 날카로운 질문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를 복수의 개념으로 쓰셨으며 자녀가 합당히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다” (교성 68:25)고 하셨습니다. 파탄된 가정이 구실을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대개의 경우 이기심에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 오고 있으며, 가족을 버린 부모는 자기들의 변명이나 구실이 대심판자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남녀의 성적 부도덕 행위는 결코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없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악이며, 그러한 변명은 아무런 힘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을 관용으로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낙태를 통해 금년에 들어 수많은 영의 자녀가 목숨을 잃었다는 보고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추악한 죄에 빠지는 여성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은 응보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 우리가 원하는 자녀를 이 세상에 데려오고, 그들을 의롭게 키웁니다.

우리는 젊은 부부가 산아 제해를 위해 수술을 받거나, 정관 절제 수술을 권장하는 부모가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변명에 만족하지 않으실 거룩한 심판자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운명을 빼앗아 갑니까? 첫 개척자가 정착할 오두막집을 세운 때부터 가정과 가족은 참된 문명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프로그램을 왜곡하면 처참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해 왔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넷물 위에 휩쓸려 다니는 나무 꺾질 처럼 거짓 생각과 위험한 방법과 악마의 교리로 우리의 운명을 망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꼬임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곧고 좁은 길”(마 7:14)에서 안일하고 넓은 길로 들어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지도자의 말씀과 권고를 따르시겠습니까? 암흑의 길로 이끌더라도 여러분이 택한 길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공정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공의는 동정, 용서, 자비에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일의 전모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현재 이루시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가책과 고통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롱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롱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성 63:58 참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아멘. 〰

왜 내아들이 오늘밤 방황하고 있을까?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이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주님의 축복과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빌면서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내 방황하는 아들이 오늘밤엔 어디에 있을까?”라는 노래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요 대관장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님께서서는 이 노래를 훌륭한 느낌을 가지고 부르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돌봐야 할 아들이 오늘밤에는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나의 기쁨, 나의 빛, 나의 사랑, 나의 기도인 내 아들아.

엄마 무릎에 앉아 놀던 아침이슬 같은 청순한 너. 밝은 얼굴,



깨끗한 마음, 귀여운 아이였었지

오 내 아들아, 오늘밤 어디서 방황하고 있느냐? 너를 사랑하기에 내 마음이 허전해지는구나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밤 어디서 방황하고 있느냐?

작자 미상

오늘 아침에 나는 “왜 내 아들이 오늘밤 방황하고 있을까?”라

는 질문을 되풀이해 보며,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방황이란 말을 사전에 보면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염두에 두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오늘밤 방황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인간은 지상의 여러 곳을 방황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아직도 광야에서 길을 잃고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란 길이 나 있지 않은 텅 빈 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 없이 혼란 속에 빠져 인생을 살아 간 사람은 이 중요한 생존의 단계에서 자신을 입증하도록 주어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인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여 결국은 죽음을 자초하게 하고 주님의 사업도 위협에 빠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첫 방황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경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할 때까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사탄을 따랐으며, 그 결과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가 경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의 범법으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백성들이



집회에 참석한 휠체어를 탄 형제

사악해졌기 때문에 멸망되었으며 그 도시를 구할 수 있는 의인의 수가 부족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덟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이 모두 멸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배우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속임을 당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베드로후서 2:1-2)

친구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쁜 일인지를 알면서 이를 행해 금단의 길로 방황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난이나

조소를 참지 못하며, 과오를 범하는 일에 단호히 반대를 하지도 못합니다. 항상 동년배나 방황하

는 성인들의 압력에 억매이게 되고, 항상 사탄의 교활한 방법을 조장하는 악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구세주께서 세상에 살아 계실 때에도 그러한 방황자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요한복음 12:42-43)

그들은 연약한 성품 때문에 방황하였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였습니다. (마 26:41 참조) 이러한 방황자는 좌절과 불만의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나 순간적인 기쁨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혹에 굴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위선의 광야도 있습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위선자들은 곧고 좁은 길에서 이탈하여 방황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부정과 불신을 본 많은 순진한 젊은이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인류에 대한 신의를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서기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꾸짖으신 마태복음 23장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가정이나 지역 사회의 지도자가 보인 나쁜 모범을 따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모범을 보여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너무도 허다합니다. 외설, 간음, 사통, 동성애 등이 오늘날 묵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순결, 신뢰, 의로움 등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제시로 받은 지혜의 말씀을 어길 때 많은 사람이 슬프고도 금지된 길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죄를 한번 짓게 되면 곧 다른 죄를 짓기 쉽고, 점점 재미가 붙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코홀이나 담배나 습관성 약의 악영향을 알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이 이 길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보이는 좋지 못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로부터 젊은이들을 멀리 방황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가정에서 알코홀과 담배를 취할 때 자녀들도 이를 따라 하게 마련이며, 다른 습관성 마약에도 빠지게 되는데, 그 결과로 그들은 가정을 떠나고, 진리와 의의 길에서 떠나고 싶다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없이 등에 가방을 짊어지고 정처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나 사실은 자유를 느끼지 못하며 악습의 노예가 되고 마는데,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나와 그들에게 필요한 빛과 사랑으로 되돌아 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부도덕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셨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실종케 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 : 14)고 하셨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그 희생자나 다른 많은 사람이 슬픔의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최근 신문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한 어머니의 슬픔과 고뇌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경찰당국은 한 여인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된 16세 소년의 어머니가 무기를 든 아들을 총으로 쏜 경찰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 소년은 38구경 권총을 경찰의 얼굴에 들이댄 순간 사살되었다고 경찰당국은 말했다.

“아들이 사살된 직후 그 어머니는 ‘잘 되었어요. 더 이상 내 속을 썩이지 않게 되었으니’라고 경찰관에게 말했다.”(베레넷 뉴스, 1974년 7월 26일)

그렇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만심과 오만함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 : 5-6)

자제력과 결단력이 부족하여 길을 잃고 헤매는 방황자도 있습니다. 그가 방황하는 곳은 캄캄하고 황량하기 그지 없는 곳으로, 그는 자신을 자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수없이 장애물에 걸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빈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극복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공의 높낮이는 극기심으로 측정되며, 실패의 여부는 자포자기로 측정됩니다. ... 이러한 법칙은 영원한 정의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

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잠 16 : 3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 : 13-14)

좁고 곧은 길을 걸으며 굽은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 가며 자기 향상과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도를 이탈하거나 굽은 길을 따르는 사람은 실패와 파멸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최근에 나는 방황자에 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부유하고 지위있는 가문 출신의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머리도 좋고 학교 성적도 좋았고 훌륭한 기술도 있었으며,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자유 사상가들처럼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 수차 경고를 들었지만 그는 금지된 길을 걸었고 술이나 마약 등을 먹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 갔습니다. 결국 그는 가정과 가족을 떠나 세상 이곳 저곳을 방랑하게 되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랑자 사회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아무 곳이나 방랑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던 태평스런 삶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좁고 곧은 길에서 이탈해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서글픈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 젊은이도

그와 같은 비극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마약과 술에 취한 그는 어느날 밤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달리다가 강물로 뛰어 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정한 어처구니 없는 약속에 따라 친구들은 부모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장례를 치르고 시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그가 죽은 강물에 날렸습니다.

죽은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시체 인도를 요구할 수도 없었던 이 부모와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처럼 방랑의 길을 택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의 많은 가족들이 슬픈 나날을 보낸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파멸의 길로 이끄는 친구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딸에게 애걸하는 아버지가 나오는 영화를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그 딸은 “난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넌 네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모두 괴롭히고 있는 거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시기 위해 한 번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으나, 그분은 우리에게 대한 지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세와 영원동안 우리의 복리를 위해 그의 가르침과 계획을 거부할 때 다시 한 번 고통을 겪으십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길 대신에 그의 길을 택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부를 약속하신 것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내가 말씀드리려 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기존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니 가정과 가족을 떠나라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그들과 어울리게 된 앞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들과 비

슷한 환경에서 자란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역시 알코홀, 담배, 마약, 부도덕 등의 전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의 결말은 전번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무엇인가가 그로 하여금 가족을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배운 가르침이 새삼 머리에 떠올랐으며, 그가 가족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족이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자 고집을 꺾고 가족과 재회를 결심했고, 긴 머리와 덩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좋지는 않았지만 가족은 반가이 환영과 사랑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 소년은 가족의 깊은 사랑을 느꼈으며, 이것이 그가 어울린 친구들의 피상적인 우정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후에 가족을 따라 교회에 나왔고 여기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아름다운 소녀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곧 그는 이발을 하고 면도도 하게 되었으며, 마땅히 지켜야 할 표준대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금단의 길로 방황해 들어 가지 않게 되는 것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의 높은 표준에 따르며, 부모를 공경할 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말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리된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고자 한다면 그곳의 규율이나 표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와 의의 길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는 자에게는 징벌과 가책이 올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간단합니다. (갈 6:7 참조)

금단의 길이 결코 아름답거나 매력적이 못되며, 의의 길이 견디기 힘든 길이 아님을 사랑하는 자

녀가 그 길에 들어 서기 전에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교훈과 합당한 모범을 통해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제명을 알고 이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생활하면 광야를 외로이 방황하게 되지 않으며, 곧고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광스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제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라.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18-21)

황량한 광야에서 곧은 길과 영생의 길인 꽃과 태양이 있는 정원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에게 나는 모든 빛과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보고, 그들에 대해서 배우며, 그들이 주신 제명을 지킬 것을 부탁합니다. 이는 내가 그들이 살아 계시고, 그들의 말씀이 진리이며,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행복과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지상에 충만한 복음과 예언자가 있는 그의 교회를 재조직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빛으로 나가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 알아 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교회에 오시기를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㉔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매리온 지 롬니 대관장단 제2보좌

엠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돕도록 많은 성구를 들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신앙개조 3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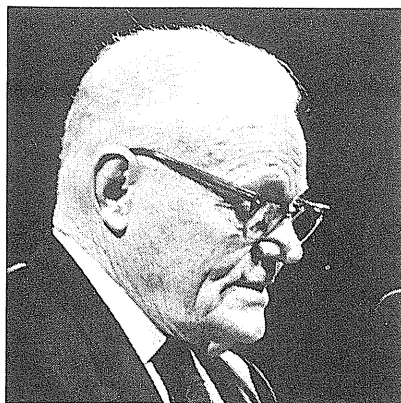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본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갖는 입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다는 말은 성스러워지고 거룩하여지며 불멸의 존재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되돌아가 영원한 진보의 길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성품과 모습과 상호 관계를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인간이란 살과 뼈의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은 영체로 이원적인 요소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구원받으신 분으로 영생을 누리십니다. 그는 불멸의 존재일 뿐 아니라 최고의 영광인 승영에 이르신 분입니다. 그는 인간이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된 상태에 이른 분입니다.

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영이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 관계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의 자녀들도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그곳에 태어납니다. 현대의 계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주

민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과 딸”(교성 76:24)이라고 밝혀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의 설교에서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소생”(행 17:28)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멸의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아직 불멸의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죽음과 동시에 땅으로 되돌아 가는데,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심오한 질문을 골똘히 생각해 왔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유명한 햄릿의 독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언급하였습니다.

생과 사, 바로 이것이 문제다... 죽는다 잠잔다—

...잠들면 일체 끝이 아닌가 심뇌며 육체가 받는 온갖 고통이며,

그렇다면 죽음, 잠, 이것이야말로 열렬히 원하는 생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잔다, 그래도 꿈을 꾸겠지. 아 이게 문제다. 대체 생의 굴레를 벗어나 영원한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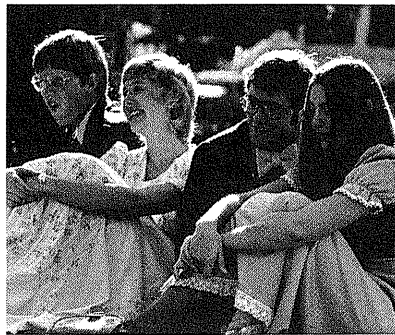
을 잘 때,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 이를 생각하니 망설여질 수 밖에—글쎄 이 주저가 있기에 인생은 일평생 불행하게 마련이지. 불연이며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누가 참을소냐? 폭군의 횡포와 세도가의 모욕을 불신했던 사랑의 고통과 무성의한 재판관들, 관리들의 오만을, 유덕한 사람이 받아야 할 소인배의 불손을, 대관절 누가 참을소냐? 한 자루의 단도면 깨끗이 청산할 수 있을 것을, 그 누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루한 인생에 신음하며 진땀을 뻘소냐? 사후의 불안과 나그네 한 번 가면 영영 못돌아 오는 미지의 세계가 결심을 망설이게 하고, 이래서 미지의 저 세상으로 날아 가느니, 차라리 이대로 현재의 환난을 참게 마련이지.

해밋 3막 1장

셰익스피어는 이 글에서 죽음 후 인간의 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문제를 극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대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원 전 75년 경에 미대륙에는 엘마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은 후 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큰 신

앙으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 모든 사람의 영이 그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



말씀을 듣는 두쌍

“죄 많고 불의한 영들은...어둠의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불의한 영의 상태다. 곧 암흑의 상태요, 저들을 치실 불길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기다리는 무서운 상태다. 부활의 때까지 의로운 영들은 낙원에 거하겠으나, 이와 같이 불의한 영들은 이러한 곳에 남아 있어야 하리라.”(엘 40 : 11-14)

교회는 이 경전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이 만민에게 임하는 것이 때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부활의 권세가 필요하였고, 인간들의 타락으로 하여 부활은 인간들에게 필요하였으며 타락은 범법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 타락한지라 주의 면전에서 절단되어 쫓겨났느니라.

“그러므로 무한하신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 했나니, 한량 없으신 속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썩을 것들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지 못하며 인간들에게 내려진 첫 번 심판이 끝없이 계속되었을 것이리라.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육신은 누워 썩어서 육신의 어미인 땅으로 돌아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라.

“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며, 보라 만일 육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에게 속박되어 함께 악마가 되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임이

라. “또한 우리의 영은 저와 같은 악마가 되며 악마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어 쫓기며 거짓의 아비와 함께 하며, 그와 더불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진실로 저와 같이 되리니...”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

신지라, 이 죽음 곧 내가 이야기한 바 세상의 죽음이 죽음의 사슬을 풀었으니 세상의 죽음이라 함은 무덤을 말함이라

“또한 내가 이야기한 바 영의 죽음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리니, 영의 죽음이란 지옥을 뜻하는 것인 바, 사망과 지옥이 각각 죽은 자를 내어 놓으며 지옥이 속박했던 영을 내어 놓고 무덤이 속박했던 육체를 내어 놓을 것이며, 오직 부활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권세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저마다의 것으로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낙원은 의로운 영들을 내어 주어 무덤이 의로운 자들의 육체를 내어 놓으며 영과 육체가 다시 제 것으로 회복되어 만민은 썩지 않을 것이 되며 불사불멸의 것이 되어, 육신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지식을 갖춘 산 영육이 되리니, 다만 우리의 지식은 장차 완전해질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결함과 별거벗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요, 의인은 순결의 옷 곧 안의 옷으로 입혀져 저들의 기쁨과 의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리라.”

“모든 사람이 이 첫번 죽음을 벗어나 생명에 이르며 이미 불사불멸의 몸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

엘의 거룩하신 이의 심판대에 나서야 하느니라. 그 때에 심판이 내려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니이 6-9, 11-15)

이상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선언한 다음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전반적인 부활을 말해 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 : 22)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겨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무덤의 문을 열어 주었다는 복음 교리를 믿습니다. 부활은 구원에 이르는 필수 단계라는 것도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모든 사람이 부활한 후 불멸의 영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며, 지상에서의 행위에 따라 최후의 심판을 받으며,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였는지 불복하였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전상의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율법과 의식은 그가 지상을 사는 동안 쌓게 되며, 그렇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에서 깨끗해지게 되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다 적은 보상을 받

게 됩니다.

엘마는 이러한 최후의 심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빛을 발하리라.

“그러나 보라 악한 자에게는 무서운 죽음이 임하나니…저들이…쓴 잔의 찌꺼기를 마시리라.”(엘마서 40 : 25-26)

기원전 550년 경에 고대 미대륙의 예언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신앙개조 3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다 들으시는 데는 약 6분이 걸리나 그만한 시간을 들여 들으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 많은 무리가 장차 이를 일을 애써 알고자 하였음을 내가 알았음이며, 우리의 육신이 노쇠하여 죽으나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주님께서 몸으로 친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보이시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내가 아는도다. 이러한 일이 저들 가운데 일어남이 마땅하니,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만민을 주 앞에 복종하게 하시려 육으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붙이사

절망하지 말라

즈라 태프트 벤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상대 겸손하게 감사드리는데 마
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말씀이 여러분
의 앞날에 물질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물
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영적인 면
에서도 실망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성 45 : 26 참조)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망을
중 자살이 그 으뜸을 차지합니다.
선악의 대결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수반하고 막바지에 이른
이 때 사탄은 절망, 실의, 낙담,
억압 등으로 성도들을 억누르기
위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죽으심이 지당하심
이라.

“분명히 주가 살아 계시며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때
에 의로운 자는 의에 머무를 것이
요,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울
것이며, 더러운 자는 악마요, 악
마의 천사라...저들의 고통은 영원
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유황못
같으리라...”

“그러나 보라, 이스라엘의 거룩
하신 이의 성도요, 이스라엘의 거
룩하신 이를 믿으며 세상의 십자
가를 견디고 그 수욕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의로운 자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마련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니,
저들의 기쁨이 영원토록 가득차
리라.

“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자비하심이 크시도
다. 이는 주께서 주의 성도들을
무서운 괴물인 악마와 죽음과 지
옥과 끝도 없는 불과 유황못의 고통
에서 건져 주심이라.

“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시도다...”

“주는 주의 음성을 따르는 모든
인간을 구하시려 세상에 오시나
니, 보라 그가 만민의 고통 곧 아
담에게 속한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겪
으실 것이요.

“주께서 이같이 고난을 겪으심
은 만민에게 부활이 이르게 하사
저들도 큰 심판의 날에 주앞에서

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주는 만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회개하여 그의 이
름으로 침례받으라 하셨으며, 그
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
원받지 못하리라 하시었고,” (니파
이서 9 : 4-5, 16, 18-23) 반면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믿으며 주
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며 끝까지
참으면” (니이 9 : 24 참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
두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구
원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가르침
이 참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
도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권
능을 부여받고, 그의 복음의 원
리와 의식을 만민에게 가르치라
는 사명을 받고 조직되었다는 간
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겸손, 친절, 사랑, 성실함을 마
음속에 지니고 우리는 여러분께서
주의길게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를 탐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와 같은 간증을 얻게 될 것이
며, 구원의 길에 들어서, 하나님
의 왕국에서 구원받으실 것입니
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말일성도인 우리는 가장 낙천적인 백성이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교성 1:35)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또한 “주가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교성 1:36)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 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끌어 간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했는지를 알아 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굳게 견디어, 지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셉 스미스 1서:11) 사탄의 계획인 절망, 낙담, 억압, 실의에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영을 고양시켜 우리를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는 열 두 가지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회개입니다. 물몬경에서 우리는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도다”(모로 10:22)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좋은 일을 할 때 기분이 좋고 나쁜 일을 할 때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절망과 낙담으로 끌어 내립니다. 인간이 죄 속에서 일순간의 쾌락을 맛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불행합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앨 41:10) 죄는 하나님과 불화를 초래하며 영을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신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율법은 그 나름대로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우

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절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은 주님께 나와 그의 짐을 벗어 가볍게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28-30 참조)

둘째는 기도입니다. 필요한 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시련에서부터 무서운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교성 10:5)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한다”(요셉 스미스 2서:16)는 말씀은 어린 요셉 스미스가 거룩한 숲에 들어가서 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주님께 드리던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멸하려는 괴로움에서 우리를 지키는 한 방법입니다.

세째는 봉사입니다. 남을 위해 의롭게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을 잃을 때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되며, 그러한 문제를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우울해질 때는 주변을 둘러보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역경에 빠진 사람을 찾아 보며, 그에게 가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로 그의 문제를 제거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모든 것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대회 보고, 1899년 4월 6일, 2-3페이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데 전념한 여인은 개인적인 문제에만

온갖 정성을 쏟은 여인보다 영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째는 일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일이란 우리의 비운이 아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일에서 손을 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음도 재촉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도와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물질적인 요구를 돌보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며, 가족 계보 및 신전 사업을 이행해야 하며, 가정의 밤 교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섯째는 건강입니다. 신체의 건강 상태가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교성 88:124 참조), 힘이 상으로 급히 서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교성 10:4 참조), 매사에 중용을 지키라고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첨가물이 적게 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취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음식은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며, 영양소의 결핍은 정신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는 것도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휴식과 운동은 꼭 필요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건전한 오락은 우리 종교의 일부이며, 생활의 변화도 필요할 때가 있으며, 그런 것을 기대할 때 우리 정신도 고양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독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련을 당하였을 때 물론경을 읽고 위로를 받고 쓰라린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구약 성서의 시편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영혼에 특별한 양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계시인 교리와 성약을 읽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과 특히 살아 계신 교회 대관장의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하며, 어려움을 당해 이를 읽을 때 지도와 위안을 얻게 됩니다.

일곱째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나 중대한 사건이 예견될 때 신권 소유자의 안수로써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브리감 영의 안수로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영혼에 위로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가장 되시는 여러분, 아내와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게 생활하십시오.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이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욱 필요합니다. 성찬은 성실한 자제로 이를 취할 때 “영혼을 축복해 주므로”(교성 20:77,79) 자리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몸이 불편할 때라도 자주 취해야 합니다.

여덟째는 금식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악령을 쫓을 수 없을 때가 있음을 경전이 말해 줍니다. (마태복음 17:21 참조) 정구적으로 금식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심신이 강해집니다. 금식 주일날 우리가 하는 일 반 금식은 24시간 동안 음식과 음료수를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을 음식을 삼가하며 물만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금식 후에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효과적

으로 금식하려면 기도와 명상이 뒤따라야 하며, 육체적인 노동은 최소로 줄여야 하고, 경전이나 금식의 이유를 깊이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홉째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 줄 수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짐을 덜어 줄 수 있으며, 옳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참된 친구의 우정은 무엇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특별한 의미를 안겨 줍니다. “진정한 친구의 이야기가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어떤 형태이든 진정한 우정의 표시는 사랑이 갖는 느낌을 행동에 옮기게 해 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34페이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만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일깨워 주는 분을 친구로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친구를 갖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정은 가정에서부터 우리나야 하며 그 다음에 가정 복음 교사, 정원회 지도자, 감독, 기타 교회 교사나 지도자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과 만나 우정을 나누는 것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음악입니다. 영감에 찬 음악은 성스러운 생각으로 영혼을 채워 주며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고, 영혼에 평화를 안겨다 줍니다. 사울이 악령에 잡혀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은 그를 위해 하프를 연주하였으며, 사울은 정신을 되찾았고 악령을 물리쳤습니다. (열상 16:23 참조)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마음이 유혹으

로 고통을 당할 때 크게 노래를 부르며 마음속에 영감에 찬 가사를 간직하고 악령을 몰아낼 수 있도록 영감에 찬 시온의 노래를 암기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피로운 생각을 잊는 데도 좋습니다.

열 한 번째는 인내입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 형제가 앓고 있을 때 사촌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 올지라도 낙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노바스코우셔의 탄광 갱속에 갇히거나 록키산에 깔린다 해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 신앙을 역사하고 훌륭한 용기를 보이면 결국은 정상에 서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 가족, 조라 스미스 자비스,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 출판사, 1962년 54페이지)

악령이 여러분을 떠날 때까지 굳게 버티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교성 121:7-8)

수많은 고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굳은 인내심을 잃지 않고 전진한다면 결국은 여러분이 광명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동안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시험을 받으시면서 인간의 자녀를 위한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영화롭게 되고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지난 날의 승리를 회상하고 성실하다면 더욱 큰 축복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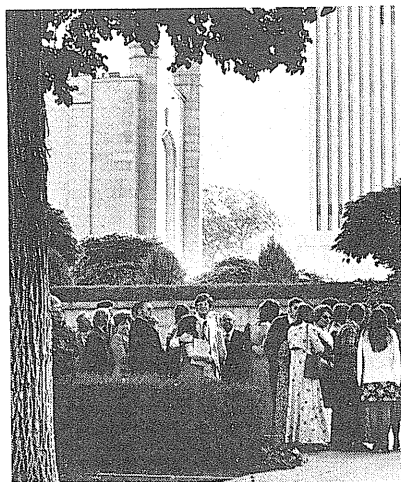
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갖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슬픔을 잊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전 2:9)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열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가치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곧 낙담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가 성취되면 다른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목표 중에는 지속되는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매주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에 대해 경전에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네 가지의 주요 목표 즉 영적인 면, 지적인 면, 신체적인 면, 그리고 사교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구세주께서 물으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27)고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베푸신 모든 덕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고 주의 모습을 구하며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생의 한 가지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뜻대를 향하여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립보서 3:13-14)

주님과 같이 되겠다는 목표에 온 마음을 쏟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비관적인 온갖 생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빌 2:5)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교성 6:36)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같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이 한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께서 십자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사 26:3)라는 성경 말씀이 그 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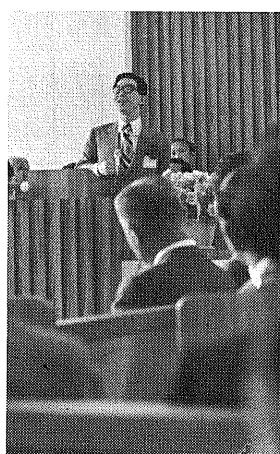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란 모든 우리의 적에 대한 우리의 승리이며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적을 우리의 발 아래 둘 수 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97페이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방편과 그밖의 다른 의로운 방편

을 하나님께서 강구해 두고 계심을 기억하여 우리는 절망과 낙담과 상심과 의기소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죽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삶은 시험입니다. 인생은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우리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의 거룩한 자들이 “저들이 이 세상을 해매는 나그네요, 순례자”(교성 45:13)라고 생각한 것 같이 우리도 때때로 그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존 번안의 저서 천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 도시에 들어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는 천국 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그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자이안트 디스페어(대 역경)를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을 고양시키고 기쁨의 길로 인도되기 위해서 사탄의 계획인 절망, 낙담, 억압, 자포자기 등을 회개, 기도, 봉사, 일, 건강, 독서, 축복, 금식, 친구, 음악, 인내, 목표 등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앞에 놓인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활용하여 기독교 순례자인 우리가 지상에서 보다 큰 행복을 맛보며, 해의 왕국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최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圖



기쁨의 전환

스테이크 부장 이 호남

우리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옥에 안내를 받아 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노기에 가득 찬 무리들이 아우성치고 있었읍니다. 주위에는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 빠져 가족만 남아 있었읍니다. 이상해서 더 가까이 가 보았더니 뻔뻔팔을 하고 있어, 팔을 구부릴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 자기 손으로 음식을 집어다 먹으려야 자기 입으로 갖다 넣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치밀어 서로 치고 박고 식탁을 엮어 버리며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읍니다.

다음에 천국이란 데를 안내받아 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화기에 찬 무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기쁨에 넘쳐 있나하여 더 가까이 가 보았더니 그들도 역시 지옥에서 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뻔뻔팔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음식을 집어다가 자기 입으로 넣는 대신에 서로 상대방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이었읍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감사하며 거기있는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으며 노래 부르는 것이었읍니다.

이 예화에서 본다면 천국과 지옥은, 그것은 어떤 조건의 차이때문에 생긴것이 아니라 개념의 차이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세계와 “서로”의 세계의 차이에서 두개의 상반된 상황이 조성됩니다. 지옥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분노와 기아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었고, 천국 사람들은 먹을 것이 더 많고 몸이 성해서 화기와 기쁨에 넘쳐 있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무엇이든 하나라도 남에게서 빼앗아야 속이 시원하고, 무엇이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속이 편하고, 무엇이든 남보다 잘나 보여야 신이나고... 이래야만 그에게 기쁨이 있고,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라면, 이땅에 그에게 항상 기쁘게 해줄 장수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어느 곳에서도 그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천국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이 땅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 터요, 그가 의식하든 안하든간에 그는 언제나 긴장과 불안속에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로 화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애원하는 눈동자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 서로 도와주며 살아나갈때 우리는 같은 조건하에서도 서로 감사해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빼앗는 기쁨”으로부터 “도와주는 기쁨”으로 전환, “남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기쁨”대신,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기쁨으로의 전환이 있어야겠읍니다. 기적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야 말로 큰 기적적인 것입니다.

기쁨의 방향이 전환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그 잊어버렸던 의미를 다시 찾게 되며, 수없이 많은 괴로운 조건들은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재료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와같은 중생, 기적으로 변화된 자아를 발견 못하면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여야 겠읍니다.

우리는 이 고마운 기쁨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야겠읍니다. 우리 각자가 선교사가 되어야겠읍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함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다합니다.

